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스리랑카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국가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8
4. 정치	12
5. 주요산업	14

II. 무역

1. 수출입	17
2. 한국과의 수출입	26
3. 수출 유망항목	30
4. 무역협정	33
5. 수입규제 및 관세	37
6. 통관 · 물류	40

III. 투자

1. 투자환경	43
2. 외국인직접투자	51
3. 한국기업 투자	53
4. 투자진출방식	59
5. 외환	62
6. 노무	63
7. 세무	66
8. 지식재산권	68
9. 청산 및 철수	69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70
2. 비즈니스 에티켓	72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74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74

5.출입국 안내	76
6.유관기관	77
7.물가정보	79
8.출장정보	82
9.생활정보	84
10.KOTRA 무역관 안내	91
11.전시회 정보	97
	98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면적	65,610 km ² (자료원 :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간보고서, 2022 기준)
수도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Sri Jayawardenepura Kotte)
인구	22,181,000 명 (자료원 :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간보고서, 2022 기준)
민족(인종)	싱할라족(74.9%), 타밀족(15.4%), 무어인(무슬림, 9.2%), 기타(0.5%)
언어	싱할라 및 타밀어
종교	불교(70.1%), 힌두교(12.6%), 이슬람교(9.7%), 기독교(7.4%), 기타
기후	열대 몬순기후, 고온다습(연평균 콜롬보 기온 27°)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Ranil Wickremesinghe (정당명 : UNP)- 전임 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따른 반정부 시위로 2022년 7월 13일 임기 도중 사임하여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 수행○ 수상: Dinesh Gunawardena (정당명 : SLPP)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73-11-14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협정	1978-01-20	항공관련 내용	
문화협정	1978-01-20	문화관련 내용	
투자보장협정	1980-07-15	투자보장 관련 내용	
무역협정	1984-10-08	무역관련 내용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약	1986-06-20	이중과세 및 무역관련 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02-08	경제협력기금관련 내용	
과학기술협력협정	1994-06-24	과학기술협력관련 내용	

한국교민 수

600 명 (자료원 :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2021년 12월 집계))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스리랑카와는 1973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공식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스리랑카의 위기 때마다(2004년 쓰나미 사태, 2009년 내전 난민 발생) 한국은 그 누구보다 먼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믿음직한 우방의 역할을 해왔다. 전 대통령 라자팍사는 국무총리 시절 한국을 2번 방문한 경험이 있고, 양 정부는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2017년에는 3월 15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11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스리랑카를 방문하였으며 11월 28~30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 중심제이나,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형태로 2019년 11월 16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전 스리랑카 대통령이자 자신의 친형인 마힌다 라자팍사를 수상으로 임명하며 사실상 형제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중앙집권 방식을 기반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며 친화적이면서도 비동맹 외교 정책으로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마힌다 라자팍사가 이끌고 있는 Sri Lanka Podujana Peramuna(SLPP) 정당은 2020년 8월 5일에 출범하여 다수 동맹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임기 기간 동안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 예측했었다. 하지만, 기존부터 쌓여왔던 많은 국가 부채 상환 리스크와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사태, 2020년/2021년 코로나 사태, 2022년 러-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외부 환경/정세 변화

에 취약한 작은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이것이 국가 재정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023년 3월 21에 IMF로부터 17번째 구제 금융 지원 승인을 받아 30억 불 EFF(Extended Fund Facility)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2022년 3월 30일(수)부터 스리랑카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국민과 다수의 당이 라자팍사 정권(SLPP)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시작하였다. 점차 시위 규모가 확산되고 정당들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시위가 다각화되었으며, 그동안 간헐적 국가 통행 금지,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다. 결국 2022년 7월 13일에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사임하면서, 이미 스리랑카 총리직을 5번이나 수행했던 Ranil Wickremesinghe (라닐 위크레마싱헤) UNP 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022년 7월 21일부터 임기 시작). 하지만 형제가 대통령을 해온 라자팍사 가문의 영향력은 작은 섬나라인 스리랑카 곳곳에 뻗어있어 지금의 라닐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대로 계속 국가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현지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과는 연관이 전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 특별한 변화나 영향을 줄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리랑카의 국가 대외 부채는 1위 중국 (52%), 2위 일본 (19.5%), 3위 인도 (12%), 4위 프랑스 (2.9%), 5위 대한민국 (2.4%), 6위 오스트리아 (2.2%), 7위 독일 (1.4%), 8위 영국 (1.4%), 9위 사우디아라비아 (1.0%), 10위 미국 (0.9%)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채무를 많이 진 중국과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보다는, 채무국을 다각화해야 하고 원조 금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외교 노선에 변화를 꾀할 수는 있다.

경제

한국은 1990년대 말까지 봉제산업 위주로, 스리랑카의 최대 투자국이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국들이 의류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스리랑카 의류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 우리 기업들도 수익성 악화에 따라 봉제분야 제조업체들이 많이 철수한 상태이다.

양국교역 현황은 한국은 완제품을, 스리랑카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보완적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한국 수출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양국 교역액은 3억 3,600만불인데 그 중 스리랑카가 한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억 4,500만불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자유로운 반면, 외환통제, 경직적 노동법, 열악한 부품산업, 시장협소, 고관세 등이 걸림돌이며, 특히 2022년의 경우 스리랑카가 디폴트(대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7.8%로 마감하였고, 한국기업의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50만 불의 투자에 그쳤으며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다.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와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현지 관광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2020년 3월 24일~5월 11일의 7주간의 24시간 전면 통행금지로 필수재를 제외한 공장 가동까지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기기도 하였다. 이후, 이동제한, 재택근무 등으로 교통, 외식업 등 관련 민간소비는 감소하였으나, 식음료, 주택, 상수도, 전기 등 필수재 관련 지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건설업, 제조업 등 2차 산업 및 관광업 등 3차 산업 분야에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 수요위축 및 수입제한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대폭 감소하였으며, 순수출은 전년대비 3.5%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즈니스가 거의 정상화 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3.5%를 보이며 무난한 한 해를 보내기도 하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4월 16일~7월 15일까지 필수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비필수재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4월 9일~7월 8일까지는 L/C거래 및 비즈니스 목적의 외화송금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취해져 수입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대한 조치의 목적은 정부가 외화가 부족하여 달러화에 대한 스리랑카 루피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음에 대비하고 외화유출을 제한하고자 함이었다. T/T를 받지 않고 오직 L/C (평균 90~180일 자로 개설)만 받게 되면서 많은 수출 기업들에 혼란을 주기도 하였으나, 이참에 수입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내수 생산을 늘리고자 하였다.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더 조치가 강화되어, 수입 시 L/C 90~180일 거래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가 L/C를 개설하면서 스리랑카 중앙은행에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사전에 현금으로 예치하고 승인을 받아야 제품 수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예치한 현금은 중앙은행에서 이자도 붙여주지 않고 6개월 뒤에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4월 12일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였다. 스리랑카 재무부는 통화 스왑(Swap)과 DIB(Development Impact Bond - 자원이 적은 국가의 경제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성과 기반 투자 수단)을 제외하고, 당분간 모든 외화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공표하였으며, 대외채무 510억달러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였다. 원래 다가오는 4월 18일에 스리랑카는 기존에 판매한 국채에 대한 'Coupon payment(투자에 대한 투자가가 받는 이자 개념)'을 해야만 했는데 그 직전에 못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블룸버그는 스리랑카

가 2022년도에 청산해야 할 빚이 86억 달러이지만, 3월 말 기준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19.4억 달러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원래 4월 18일에 7,820만 달러를 기존 판매 국채에 대한 'Coupon payment'(투자에 대한 투자가가 받는 이자)로 지급했어야 했으며, 국제정부채권(International Sovereign Bond)에 대한 만기일인 7월 25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억 달러라고 보도하였다. 디폴트 사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는 관광산업에 대한 타격이 손꼽힌다. 스리랑카에서 관광산업은 국가 전체 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3번째 규모의 외화수입원에 해당한다. 코로나가 없었던 2018년에는 관광 수익이 연간 40~50억 달러로 추산되었지만, 약 600여 명의 사/부상자를 낳았던 부활절테러 사태(2019년) 및 연이은 코로나 사태(2020년 초)로 2019년~2021년 3년간 연간 40~50억 달러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없었고,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Fitch는 4월 13일 즉시 스리랑카의 '장기 외화표시 채권발행자 등급'(Long Term Foreign-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을 'C'로 등급을 낮추었고 'RD(Restricted Default)'로 재표기하였다. 이는 Fitch사가 해당 선언을 일시적 디폴트가 아닌 국가 디폴트 과정의 시작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Fitch사는 국가 채무 불이행 상황과 거시경제 조건들이 현지 은행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스리랑카의 현지 13개 은행에 대한 전망을 'Neutral (중립)'에서 -> 'Deteriorating (악화)'로 평가하였고, 국영은행인 Bank of Ceylon은 별도 평가 군으로 분류하였다. 또 다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S&P 역시 신용등급을 'CCC'에서 -> 'CCC- Negative(부정적)'으로 격하하였다. 스리랑카 증권거래소(Colombo Stock Exchange)에서의 최근 마지막 거래는 4월 8일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4월 18일부터 5일 동안 주식시장을 폐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결정에 대해 실론 상공회의소(Ceylon Chamber of Commerce)는 폐장 대신 '서킷 브레이커'(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일시중단하는 제도)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스리랑카 중앙은행 고시환율은 2022년 9월 30일 기준 1달러 당 362.90 루피로, 3월 8일 환율(1달러 당 202.09 루피)에 비해 약 79% 정도 루피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현지 물가에도 큰 변동을 초래하였다. 전통적으로 스리랑카는 '수입 의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화 반출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외화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대부분 수입품목에 대해 L/C 오픈만 허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18일, 알리 사브리 재무장관이 이끄는 스리랑카 대표단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5일 동안 IMF와 구제금융 도입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IMF는 현재 스리랑카 재무 상태로는 용자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국들과 채무 구조조정을 이행한 이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스리랑카 주재 IMF 마사히로 노자키 사무소장은 스리랑카-IMF 본부 양측이 건설적 협의를 가진 바, 스리랑카 최근 대외 경제, 재정상황 등을 감안,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을 위해 대내외 신뢰도와 일관성이 높은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23년 3월 21일, 30억 달러를 EFF(Extended Fund Facility - 일반용자제도)로 4년 동안 빌리기로 승인이 났는데, 재미있는 점은 스리랑카가 지금까지 IMF에 17번째 구제 자금 용자를 신청하였으나, IMF 프로그램을 IMF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이행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5번째이다.

2022년도는 경제난이 극심하면서 현지 언론은 내부 정치 불안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2023년은 IMF 용자 도입과 대외 원조 자금 유치가 있어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와 루피화 평가에 있어 안전성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은행은 2023년 스리랑카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한다. 스리랑카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는 한국으로의 수출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와 자금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5~7년간 스리랑카-한국 간의 경제협력 방향은 "FDI와 수출주도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투자가 수출을 견인하고 수출이 경제성장을 리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2023년 11월 28일 기준 스리랑카 중앙은행 고시환율은 1달러당 329 스리랑카 루피이다.

문화

2004년 6월 1일 고용허가제인 한국-스리랑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EPS (Employment Permit System)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근로자는 22,000여 명 수준이었고, 2023년 현재 기준 7,250명의 신규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한국으로 송출했다.

스리랑카 국민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한국어 시험(TOPIK)에 2023년 상반기에만 8만 5,000여 명이 응시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취업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처럼 스리랑카 국민이 한국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인과 동등한 일을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중동국가 등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도 불교문화가 정착돼 있어 문화적 친근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점 역시 한국 취업 선호의 또 다른 이유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부터 한국어 교과를 A/L과정에 정식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학교에서 2021년도에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하면 2023년에는 A/L 시험에서 한국어 교과를 응시할 수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0.2	-4.6	3.5	-7.8	
명목GDP (십억\$)	89	84.6	88.5	77.1	
1인당 GDP (PPP, \$)	14,214.7	13,813	14,706.5	14,230	
1인당 명목 GDP (\$)	4,082	3,858	3,997	3,474	
정부부채 (% of GDP)	82.6	95.7	102.2	117.7	
물가상승률 (%)	4.3	4.6	6	46.4	
실업률 (%)	4.8	5.5	5.1	4.7	
수출액 (백만\$)	11,940	10,047	12,499	13,106	
수입액 (백만\$)	19,937	16,055	20,637	18,291	
무역수지 (백만\$)	-7,997	-6,008	-8,138	-5,185	-
외환 보유고 (백만\$)	7,642	5,664	3,139	1,897	
이자율 (%)	8.45	5.05	8.24	29.27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78.78	185.52	198.88	324.55	

〈자료원 : 스리랑카 중앙은행 2022 연간보고서, IMF, 세계은행 집계 자료〉

나. 경제 동향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이 종결되면서 전후복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8%를 넘었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매년 4~5%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국내 제조기반이 취약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는 오히려 수입 수요 증가로 연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다.

2015년 시리세나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 정부 관련 부정부패 조사가 실시되어, 한동안 프로

젝트가 잠시 중단되는 등 경제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4%대로 감소하였지만,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각 5.5%, 5.3% 증가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업활동이 위축되고 수력공급도 차질을 빚었지만, 서비스 분야 등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4.4%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2017년 약 6,000여 개 제품에 대한 EU GSP Plus 지위를 (2010년 상실 후) 재획득 하였다. 2018년 싱가포르-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SLSFTA)을 체결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4월에 있었던 부활절 자살폭탄 테러사건으로 관광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같은 해 1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로 많은 정부 프로젝트들이 대기 상태에 머물면서 GDP 성장률은 2.3%에 그쳤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부는 수출 지향적 경제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제조업 및 산업기반을 공공부문 주도형에서 민간부문 주도형으로 변화하여 내수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광업을 선두로 한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 성장 모델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건설업과 스리랑카의 최대 수출품인 식품, 섬유 제조 또한 변함없이 경제를 이끌고자 하였다. 스리랑카 투자진흥청(BOI)에서 주목하는 성장 동력 분야는 제약/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제조 공정 유치와 IT 소프트웨어 내수 개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고기능성 의류 제조 공정 유치/ 식품 내수 가공 설비 유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 시스템 확장이다.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와는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는 FTA 협상을 몇 년째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체결 소식은 없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자, 쌀, 양파 등의 농산물에는 관세를 높게 책정하는 편이고, 정부 및 민간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건설 부문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 친중정책을 펼친 이전 정부들에 대해 중국 투자의 높은 이자율과 불투명한 재정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많았던 만큼, 현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과 합리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외 지향적 정책으로 인도와의 관계 개선 및 서방국가로부터의 다양한 투자 유치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기초여건을 탄탄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IMF는 스리랑카의 국가 분류를 중저소득국(Lower-middle-income economy)로 변경하였고, 2021년 국가신용등급은 Caa2(안정)으로 하락하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국가 부채가 총 GDP의 약 108%를 차지) FTA 체결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비전 2025'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청 및 개발전략국제통상부를 중심으로 투자 유망분야를 발굴함과 동시에 수출품목 및 대상국가 다변화 정책 등을 입안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는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동안 외화부채 및 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부채는 GDP의 120%까지 이르렀는데, 극심한 외화부족으로 인해 2022년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고시환율은 3월 초 1달러 당 200 스리랑카 루피에서 같은해 12월 말에는 363 스리랑카 루피로 가치가 급락하기도 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46.4%에 이르렀다.

블룸버그는 스리랑카가 2022년도에 청산해야 할 빚이 86억 달러이지만, 3월 말 기준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19.4억 달러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원래 4월 18일에 7,820만 달러를 기존 판매 국채에 대한 'Coupon payment'(투자에 대한 투자자가 받는 이자)로 지급했어야 했으며, 국제정부채권(International Sovereign Bond)에 대한 만기일인 7월 25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억 달러라고 보도하였다.

현 사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는 관광산업에 대한 타격이 손꼽힌다. 스리랑카에서 관광산업은 국가 전체 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3번째 규모의 외화수입원에 해당한다. 코로나가 없었던 2018년에는 관광 수익이 연간 40~50억 달러로 추산되었지만, 약 600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부활절테러 사태(2019년) 및 연이은 코로나 사태(2020년 초)로 2019~2021년 3년간 기존만큼의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없었고, 이를 대체할 방법도 찾을 수 없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Fitch는 2022년 4월 13일 즉시 스리랑카의 '장기 외화표시 채권발행자 등급'(Long Term Foreign-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을 'C'로 낮추었고 'RD(Restricted Default)'로 재표기하였다. 이는 Fitch사가 해당 선언을 일시적 디폴트가 아닌 국가 디폴트 과정의 시작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Fitch사는 국가 채무 불이행 상황과 거시경제 조건들이 현지 은행 산업 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스리랑카의 현지 13개 은행에 대한 전망을 'Neutral (중립)'에서 'Deteriorating (악화)'로 평가하였고, 국영은행인 Bank of Ceylon은 별도 평가군으로 분류하였다. 또 다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S&P 역시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 Negative(부정적)’으로 격하하였다.

2022년도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원유, 식품 및 일부 원자재/산업재 가격 상승 및 수급 지연이 발생하여 스리랑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Johns Hopkins 대학과 메릴랜드 주립대-발티모어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대학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Steve Hanke 교수는 스리랑카의 진짜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4월 기준 작년 동기간 대비 +74%로 추산하기도 하였다. 이 계산은 당시의 통화 문제와 그 기회비용 및 연관 비용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소비되기 때문이고 이 부분도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스리랑카 내전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필수재 수입에 대해 5천만 달러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입대금을 결제할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석유 수입 대금 결제 지연으로 하루 4~13시간에 달하는 단전, 1시간 이상 주유소에 늘어서 있는 대기 차량, 필수품목인 우유파우더와 쌀, 의약품이 모자란 상황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3월 30일에 최초로 발생한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군 경찰까지 투입하기도 하였다. 2022년 5월 13일 시점, 스리랑카는 통행금지, 국가 비상상태에 처해 있기도 하였다.

건설산업은 스리랑카 GDP의 약 9.6%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데, 2022년 4월 12일에 Ceylon Institute of Builders (건설업자 협회)는 건설자재, 건설 중장비 등 전량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외화 절감을 위해 ‘정말 필요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당분간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발표하였다. 2022년도 2사분기 건설산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16.2%로 줄었다고 보고되었다. 최근 몇 년 대비 처음으로 쌀 생산량이 50% 하락하였고, 차(tea) 생산의 경우 하루 4~13시간에 대한 단전과 때로는 공장 자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석유를 구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차 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는데, 결국 차 산업은 26년 만에 최저 기록은 -16% 성장률로 마감하였다. 관광업계는 2022년 4월 1~10일 동안 벌어진 시위사태로 약 5억 5천 루피(한화 약 22억)에 달하는 예상 관광 수익을 잃었다고 집계하였다. 올해 추산으로 하루에 스리랑카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약 3,800명이었는데, 3월 30일부터 시작한 대통령 퇴진 시위 사태 이후 하루 관광객 입국자 수가 약 2,800명 선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3년 4월 날짜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국적별 입국 순위는, 인도(1위, 19%), 러시아(14%), 영국(8%), 독일, 프랑스, 중국,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순이다.

2022년 4월 18~22일, 스리랑카와 IMF는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였다. 그러나 IMF는 스리랑카 재무 상태로는 용자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국들과 채무 구조조정을 이행한 이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스리랑카 주재 IMF 마사히로 노자키 사무소장은 스리랑카-IMF 본부 양측이 건설적 협의를 가진바, 스리랑카 최근 대외 경제, 재정상황 등을 감안,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을 위해 대내외 신뢰도와 일관성이 높은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23년 3월 21일, IMF로부터 30억 달러 EFF(Extended Fund Facility - 일반용자제도)가 승인이 났고, 자금은 한번에 들어오지 않고 스리랑카가 얼마나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6번에 걸쳐 나누어주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2023년 11월 29일 현재, 스리랑카 중앙은행 고시 환율은 1달러당 329.5루피이다.

다. 경제 전망

스리랑카는 오랜 기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제조업 발전이 아직은 부진하다. 따라서 차, 섬유 등의 전통적인 수출분야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오랜 기간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 의존 현상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도, 중국과의 틈새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들을 타깃으로 해 경제개발을 리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2019년 론리플래닛에서 제1의 여행국가로 선정됐을 정도로 서구시장에서 스리랑카의 관광산업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광산업 인프라가 아직은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연 속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포지셔닝 되고 있어 당분간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깃 분야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산되면서도 현 정부의 강력한 '내수성장'에 대한 의지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로 수출경제를 리드하고 싶어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졌고 2017년부터 시작된 달러에 대한 루피화의 평가절하는 계속 이어졌으며, 소국 경제이다 보니 현지에서 실제 벌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외부에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리스크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년도 스리랑카 경제 성장률은 +3.7%로 마감하였으며, 2020년 첫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해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였고, 정치 환경도 안정세로 접어들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정책들이 개편되면서 비즈니스가 평년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으며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풀리면서 서비스 부문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농업을 장려하므로 농업에 대한 성장세도 전망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2년 3월 30일부터 라자팍사 정권(여당인 SLPP)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다. 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의 재정관리 부실이다. 2022년 국가부채 상환액은 70억 달러이지만, 당시 외화보유액은 18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는 2022년 4월 12일에 '디폴트 선언'을 하였고, 2022년 5월 13일 기준, '통행금지', '국가비상사태'에 놓여 있기도 하였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반정부 시위에 이어 각 정당까지 참여하여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고, 현지 언론은 관광 수입 감소 등 내부 정치 불안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46.4%에 이르렀고 1년 사이에 루피화 가치도 2021년 말 200 Rs/ 1 USD에서 -> 2022년 말 363 Rs/ 1 USD로 전년 동기 대비 1.8배나 하락하였다. UNP 정당대표이자 스리랑카 대통령인 라닐 위크레마싱헤는 향후 자국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IMF 구제 금융을 2021년에 신청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 발언하였고, 중앙은행 총재인 난달랄 위라싱헤는 "지금 스리랑카에 경제를 개혁할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사회에 경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IMF의 권고대로 세수를 올리기 위해 2022년 6월 1일부터 법인세를 30%로, 고소득자의 납세율을 34%로, 통신세 15%, 도박 및 게임세를 15%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현재 부가세는 종전 8%에서 -> 15%이다. 2022년도 스리랑카 경제성장률은 -7.8%로 마감하였다. 세계은행은 2023년 스리랑카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면서, 2024년이 되어서야 +1.2%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3년 경제 현황) 2023년에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지만 (-3.8%, 세계은행 전망),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과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전망으로 국외 채무조정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내부 구조 개혁이 이를 뒷받침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인 라닐 위크레마싱헤가 IMF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여러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기도 하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경제 수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서아시아 지역 전체가 약 +6%의 경제성장률을 바라는데, 2023년 세계 경제가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서남아시아 지역 전반은 다소 호전적일 전망이다.

스리랑카는 2023년 상반기에 태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태국으로의 연간 총수출액을 5.5억 불에서 15억 불로 늘리고자 한다. 향후 5~7년간 스리랑카는 FDI 유치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투자 유치를 위한 사회 기본 조건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이 또한 성사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 해결 방안) 지금의 경제 위기가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스리랑카 당국은 국제 사회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소 나가고자 한다. 내부적으로는 내각의 합의와 세제, 예산 개편, 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내부의 구조적 개혁을 늘 지적하면서 새로 유입되는 외부 지원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계층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용되고, 산업과 서비스에서 고용을 창출할 방안을 생각한다면 경제적 회복은 뒤따를 것을 조언하고 있다.

4. 정치

가. 정치체제

스리랑카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이나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의원집정부제이고 국회는 단원제로 총 255석이 있고 임기는 5년이다. 2023년 5월 현재 라닐 위크라마싱헤(Ranil Wickremesinghe) 대통령, 디네쉬 군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총리가 나라를 이끌고 있으며, 스리랑카 9대 국회는 총 15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UNP 정당(United National Party)과 SLFP 정당(Sri Lanka Freedom Party)이 현재 핵심 정당이다.

지방정부는 크게 공무원 조직(Civil service, 총 25개 지구)와 관구공의회(Provincial council)라는 2개의 평행 구조로 이끌고 있다. 관구공의회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지방정부에는 총 24개의 시의회, 41개 지방위원회, 276개의 산하조직(Pradeshiya Sabhas)가 있다.

나. 최신동향

스리랑카의 정치적 최신동향으로는 대내적이슈와 대외적이슈로 설명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2022년 3월부터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 (단전, 단수, 이동에 필요한 석유 공급 부족 등)로 전국에 걸친 시위를 하고 각 정당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 2022년 7월에 결국 기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사임하고 그동안 총리를 5회 역임했던 라닐 위크라마싱헤를 후임 대통령으로 긴급 선출하였으며, 총리 및 기타 주요 장관들도 교체하여 새 정부가 구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위의 대내적 이슈와도 연관된 이유인데, 스리랑카는 정부인사들이 국가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2022년 4월 디폴트를 선언하고 2023년 3월 IMF로부터 30억불 긴급 구제 금융을 승인받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Debt Politics" (채무를 가지고 국내의 정세를 조정하면서 정치와 외교를 하고 있음)에 치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채권국인 중국, 인도, 일본과의 채무 조정,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한 브릿지 파이낸싱(빌려주는 것이 아닌 기부금이나 다름 없음) 활동이 최근 대외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스리랑카의 기본적인 대외 관계 방침은 비동맹 외교 정책이다. 1977년부터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다자간 외교 테이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편이다. 스리랑카는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면서도 독립과 사회 발전을 영위하고자 한다. 국제 협약에서 스리랑카는 IAEA, IBRD, ADB, Commonwealth of Nations, Colombo Plan, ESCAP, FAO, G-24, G-77, ICAO, ICRM, IDA, IFAD, IFC, IFRC, IHO, ILO, IMF, IMO, Inmarsat, Intelsat, Interpol, IOC, IOM, ISO, ITU, NAM, OAS (관찰자 지위), OPCW, PCA, SAARC, UN, UNCTAD, UNESCO, UNIDO, UNU, UPU, WCL, WCO, WFTU, WHO, WIPO, WMO, UNWTO, WTO의 멤버로 가입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한반도의 1/3정도의 면적에 약 2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외국인으로 부터의 관광 수입이 중요한 관광국가이면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문화는 다소 닫힌 사회(Closed society)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정책 · 법령

2022년 7월, 기존에 스리랑카에서 총리를 5회 역임한 라닐 위크라마싱헤가 대통령으로 긴급 선출되었지만, 전임 대통령인 고타바야 라자팍사(원래 임기는 2019년 11월~2024년 10월)의 정치적특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라자팍사는 형제가 연달아 대통령을 역임한 스리랑카의 유력 정치 가문임).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제정한 핵심 국가 정책은 (목표 달성 기간: 2019년 11월 ~ 2024년 10월) 1)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친화적이면서도 비동맹 외교 정책을 추구, 2) 국가에 만연해온 부패를 척결하고 민심을 반영한 새 헌법을 구상하여 통솔되고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3)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여 민생 중심 경제와 기술 기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주도 정책의 연계성 강화하는 것으로 1) 수출 중점 및 유망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투자가 수출을 견인하고 수출이 경제성장을 리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정립에 노력하고, 2) 이를 위해 주요 교역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추진하고, 수출개발청(EDB) 기능 강화 및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다양한 양자/다자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노력

- 현재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와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인도와는 경제/기술 협력 협정도 맺었다.
- 태국, 방글라데시와는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중에 있고, 최대 수입 국가인 중국과는 아직까지 FTA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 디폴트 상황이 나아지면 중국과의 FTA협상을 시도하고 일본, 유럽, 미국으로 무역협정 프로포절을 제출할 의지가 있다.

- '23년 5월 25일에는 스리랑카가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개념의 FTA)가입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RCEP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협정으로 한국을 포함해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는 앞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년 12월부터 사실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시행

- 그동안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없었으나 WTO와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년 12월에 국회에서 무역구제조치 법안을 통과하고 사실상 시행 중에 있다.

- * 완전한 절차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전 Department of Commerce 법무팀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 수입 규제 현황

- 2020년 4월 ~ 2023년 9월까지 광범위한 수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 (참고) 2020년 4월 16일자로 처음 수입 제한이 공표되었을 때는 4월 16일~7월 15일까지 필수재를 제외한 모든 비필수재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스리랑카는 정책이 오랫동안 바뀌지않고 업데이트가 안되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순적이게도 정책이 동전 뒤집듯이 바뀌는 부분도 많으므로, 특히 수출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전 수출 수입 규정과 금지 품목을 다음의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ttp://www.imexport.gov.lk/index.php/en/>).

- 외화 송금도 제한하고 있어서, 수입 목적의 경우 L/C 180일 이상 조건으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을 하려면 바이어가 해당 금액을 먼저 은행에 100% 현금 이체를 한 후에 L/C 발행으로 수입이 가능하고, L/C 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해 둔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도 전혀 받지 못한다.

- 해당 조치는 주재국 정부가 외화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외화의 움직임을 확실히 통제하기 위함이며, 위 조치로 자금력이 없는 소기업은 수입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 2023년 10월, 수입 제한 전면 해제: IMF 프로그램 이행 조건 중 하나로, 자가용 및 일부 극소수 제품을 제외하고 전면 수입이 가능해졌다.

□ 스리랑카에게는 아주 중요한 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정책

- 스리랑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EU의 GSP+ 혜택을 받기로 결정되었다.

- EU GSP+ 혜택이란,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할때 받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말한다. 다만 최근 GSP+ 2024년 1월 갱신을 앞두고 스리랑카가 GSP+ 혜택을 이번에도 유지/연장해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위기에 처해있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첫째는 스리랑카가 테러방지법 (PTA, Prevention of Terrorism Act) 내용을 활용하여 EU GSP+ 자격을 획득하고는 했는데 국제협약에서 이 PTA 법을 개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TA 개정전까지는 스리랑카가 현재의 PTA 조항을 활용하여 EU에 어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리랑카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발발이후 지금까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EU에서 2023년 6월까지 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번째 이유는, 이 EU GSP+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U가 정기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사안들에 스리랑카가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2023년도 상반기에 EU는 2020-2022년도에 스리랑카가 했던 수출입 활동에 대해 감사를 한 후, 스리랑카가 여전히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콜롬보 포트시티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Colombo Port City Economic Commission Act No.11 of 2021

- 콜롬보 포트 시티 프로젝트는 스리랑카에게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스리랑카는 이 포트시티를 히트쳐서 여러 외국인직접투자를 받고 도시 개발을 지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콜롬보 포트시티란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비슷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와 2차 비즈니스로 분류한 분야에 세금 면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탄소배출권: 한국-스리랑카 2022 탄소 중립 양자 협약

- 한국-스리랑카는 2022년 탄소 중립 양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G2G), 탄소중립 양자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투자자/금융사/개발사들이 스리랑카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 스리랑카의 기본 산업 구조는 매년 거의 동일

- 2021년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농업/임업/어업 6.9%, 산업 25.9%(이중에서 제조업은 16.1%), 서비스업 58.3%으로 산업 구조로 몇년간 비슷한 비율이다.
- 2021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농업 27.3%, 산업 26%, 서비스 46.7%로 2020년 대비 큰 변동은 없다.
- 상업도시인 콜롬보와 인근지역인 감파하에 대기업 20%, 중소기업 41%가 있어 이들 지역이 현지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남부 주 Galle, Matara, 중부 주 Kandy, Nuwara Eliya에 제조업이 발달했다.
- 인구분포는 콜롬보를 포함한 Western Province 지역에 전체인구의 28%가 몰려있고, 함반토타/골을 포함한 남부지역에 12%가 살고 있다.

□ 시장여건

- (성장 동력 분야) 스리랑카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이 발표한 중점 육성 분야는 제약/전자부품/자동차부품/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제조 공정 유치와 IT 소프트웨어 내수 개발/다양한 관광 산업 개발/고기능성 의류 제조 공정 유치/식품 내수 가공 설비 유치/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 시스템 확장이다.
-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산업 원자재 수입) 현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으로 제조를 위한 중간재(화학, 건설, 철강 등)수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고, 스리랑카 핵심 산업과 관련된 필수재(섬유원자재 등)/투자재에 대한 수입은 계속 필요하다.
- (투자 인센티브) 현 정부는 인프라시설 확충(건설 경기)/농업 및 의류 공정 환경의 현대화/직접 제조 공정 설립/관광 연계 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외화유입)/투자와 관련된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 중산층 확대로 의류, 장식품, 가전제품, 외식, 유아용품, 화장품 등 소비용품 수요가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다.
 - 친환경, 건강용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요개발이 필요하다.
- 제품 구매 시 브랜드 선호경향이 높아지며, 고급 서비스업종도 선호되고 있다.
 - 개도국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제조업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신뢰도 높은 유통업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높다.
 - 현지기반을 바탕으로 한 유통업체 브랜드 선호도가 높고, 최근 들어서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급브랜드 매장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 자동차, 의류 등 완제품의 경우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스리랑카 사람들의 안목은 매년 높아지면서 오히려 수요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스리랑카 내 기계류의 경우 가격 탄력도가 높지만 품질에 대한 상대적 가성비도 중시하게 되어, 가격과 품질에 있어 브랜드위치지적 입 장인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유통/소매업 틈새시장 진출: 현지 제조 기반이 취약,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중저가 브랜드를 소싱하여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유통도 유망하다.
 - 호텔, 복합건물, 인프라 등 대형공사 수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및 이에 따른 원자재 수입이 필요하다.
 - 소비자 유통시장에서의 중저가 제품을 선호한다.
 - 제품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가전에 있어서 아직은 중국 등 저가 제품이 유통되고는 있으며, 가격조건이 좋고 기능이 복잡하지 않은 소비자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참고로, 가전제품 등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할부판매(최대 60개월)가 활성화되면서 금융판매 기법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재무서비스/보험/통신/수송/교육/건강 및 기타 전문 서비스 분야도 향후 성장할 전망이다.

□ 전반적인 여건

- 2009년 내전 종식 이후부터는 건설경기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 및 지속적인 루피화 평가 절하로 전반적인 경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이다.
- 스리랑카는 자국에서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아직은 가격에 민감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지만 점차 품질에 민감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서서히 변화해나가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다.
 - 인프라, 건설, 항만 개발에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이 필요하다.

□ 공공인프라 지속 확장

- 계층, 지역 간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예산 제약 하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 앞으로 자금 상황이 개선되면, 고속도로, 도시주택, 관개설비, 항구, 공항, 전력 등 다양한 공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계속될 것이다.
 - 그동안 특히 통신과 물류기반이 민간 기업 참가로 더욱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갔고, 콜롬보를 서남아 최대의 글로벌 도시로 개발시키는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는 완성되기까지 앞으로 20년은 더 소요될 전망이다.

○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국제적 원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IMF,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의류) 의류 수출액은 스리랑카 전체 수출금액의 약 50%를 차지하는데(2020년 수출 금액 44억 달러) 2023년 이후 GSP+ 자격 박탈 가능성으로 인해 수출액 감소 우려가 있다.

○ GSP: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받는 관세 혜택으로 이는 글로벌 의류 기업이 스리랑카에 의류 봉제 아웃 소싱을 주는 가장 큰 이유임.

○ 견고한 스리랑카 봉제산업은 2022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약 56억 불이라는 수출수익을 거두며 오히려 최근 7년 동안 최대 성과를 이룸. 스리랑카는 약 300개의 봉제 회사가 영국과 미국 등으로 최종 봉제된 의류를 납품함.

□ (ICT)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센터를 설립 하여 ICT 분야를 스리랑카 국가 브랜딩 요소 중 하나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 현지 IT 기업들은 미국/아일랜드/영국/호주/스웨덴에 있는 Fortune 500대 기업들의 오프쇼어(Offshore) 생산 역할을 하고 있으며, HCL Technologies사의 거점 센터가 마련될 예정으로 1,8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 (차 Tea) 2022년도에 차(Tea) 산업은 26년 만에 최저 기록인 -16% 성장률을 기록. 주된 이유는 차 산업의 글로벌 수요 규모는 그대로인데, 생산 업체는 증가하면서 수출액에 7~8년동안 변화없는 경체를 겪고 있는데다가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기본적인 R&D (연구 개발 - 특히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노력과 품질 개선 부문)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스리랑카 차의 3대 주요 수출국은 이라크, 터키, 러시아였다.

□ (관광 산업) 스리랑카에서 관광산업은 전체 외화수입의 3번째 순위 / 전체 외화수입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 2018년도기준 약 44~45억 달러를 관광산업에서 획득: 2018년도가 스리랑카 관광산업에서는 의미있는 지표인데 그 이유는 2019년도에 60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활절테러사건, 2020년~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사건, 2022년도는 내부 정치 불안으로 대통령 퇴진 요구 (폭력) 시위와 전국에 걸친 연료 위기가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었기 때문이다.

○ 2023년도에는 7개의 주력시장에 집중할 계획으로, 주력 관광객 유치 국가는 인도,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중동, 호주이고, 스리랑카 정부는 2025년까지 관광수입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스리랑카에는 총 2,620개의 숙박시설이 있고, 그 중 5성급 호텔이 26개, 4성급 호텔은 24개로 보고되며, 3개의 국제공항, 14개의 국내공항이 있으며, 고용지수로는 약 1백만 명이 관광 사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3백만명 정도 관광 산업에 따라 가계 형편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 2023년 4월까지 총 관광객 입국수는 441,177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348,314명 대비 1.26배 증가한 수치이다.

□ (건설 산업) 건설 산업 활동 전반이 2022년도에는 1분기 -8.9%, 2분기 -16.2% 감소하였다고 집계되는데, 주된 이유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 중단과 루피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현지 건설업체가 원자재 수입 시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훨씬 커졌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하기 위한 달러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재생에너지) 스리랑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전체 국가 전력 발전량의 70%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고, 스리랑카 전력청 (CEB)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면적의 1/3정도인 스리랑카에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는 없고, 스리랑카에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워낙 많은 만큼 한국 기업들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업 소유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스리랑카 전력청(CEB)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대금을 사후에 받는 형식인데 '22년도에 전력청이 대금을 11개월 동안이나 지불하지 못해 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도 우려사항 중 하나다.

□ 지역별 최근 프로젝트 동향

○ (마탈라) 마탈라 라자팍사 국제공항에 다목적 비즈니스 센터 설립 추진하고 있다.

○ (함반토타) 함반토타에 수출용 정유공장 설립에 대한 EOI(의향서)를 받고 있다.

- Hambantota Industrial Zone에 400에이커 면적의 제약 제조 공정이 설립될 예정이며, 여기서 제조되는 의약품은 국내 수요에 대한 조달 및 아프리카와 주변 서남아 국가로의 수출에 사용된다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 이 지역에 자동차 타이어 제조 공정 설립을 위해 3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앞으로 스리랑카가 지닌 천연자원 중 하나인 그래핀(Graphene)을 활용하여 리튬-이온 자동차 배터리를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자 한다.

○ (네곰보) 반다라나이케 공항에는 2023년 상반기 내로 7백만 불의 투자가 들어와 신규 면세점을 지을 예정이다.

○ (트링코말리) 인도-스리랑카는 트링코말리지역에 공동개발 형식으로 신규 원유 저장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콜롬보) 콜롬보 Port City에는 영국 학교들이 국제 학교 설립을 위해 시장성 타진 중이다. Port City는 향후 약 87,000개의 신규 일 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 완성까지는 지금부터 20년 정도는 바라봐야 한다.

- 콜롬보 포트 시티 프로젝트: 콜롬보 항구(바다) 주변에 269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을 매입하여 총 560만 스퀘어미터에 달하는 서남아시아의 고급 주거/유통/비즈니스 구역을 완성한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 콜롬보 항구 (Colombo Port)에는 늘어나는 물류량을 처리하기 위해 East Container Terminal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만 개발된 상태로 앞으로 5.5억 달러의 추가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콜롬보에 있는 상징적 건물 중 하나인 로터스 타워에 싱가포르가 투자하여 새 카지노(외국인 출입 허용)가 들어올 예정이다.

○ (바티칼로아) Eravur, Barricaloa 지역에는 직물 공정 구역을 설립하여 최종 봉제된 의류 수출 기업들에게 직물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한다는 것이 목표이며 주재국 투자청은 이에 대해 중국, 인도로부터 USD 5천만 ~ 1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유치해 보려고 한다.

○ (자프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발전량을 늘리고자 하기 때문에, ADB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자프나 (Jaffna) 지역에 3개의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금 투자를 받았고 중국 기업과 공동 로 공사/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 (마나르구와 푸나카리) 인도 Adeni 그룹은 최근 마나르구에 250MW, 푸나카리에 100MW 풍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BOI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금부터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 (콜롬보<->캔디) 2024년까지 콜롬보-캔디를 연결하는 중앙 고속도로 건설을 완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

○ (콜롬보 인근 - 콜로나와) 실론 석유터미널 공사 (오일 저장소 신규 건설) 입찰 중이다.

○ (콜롬보 인근 - 케라왈라피티야) 스리랑카 관세청과 컨테이너 검사 추적 솔루션 설치 추진 중이다.

○ (수질개선) 약 (한화) 6,000억 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몇 년간 전국적으로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하고자 한다. (지역: Alawwa-Polgahawela, Matugama Agalawatte, Wisal Matale, Anuradhapura North, Colombo East, Medirigiriya, Galle)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스리랑카는 향후 5~7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투자가 수출을 견인하고 수출이 경제성장을 리드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부터도 수입보다는 수출에 더 집중하고 있어 해마다 스리랑카의 대 한국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국가 경제 운용 방식 자체가 정치는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경제는 자유시장경제 방식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진출과 자금 지원을 통해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다.

계속되는 채용자 (대외채무), 내부 정치적 불안 속에서 기존의 국가 성장 동력 부문인 의류, 관광, 차(Tea)산업에서 꾸준한 R&D(연구/개발)이 있어야 지속적인 외화 수입을 얻어낼 수 있으며, 인프라 건설, 콜롬보 포트 시티 개발, IT의 ITO&BPO(아웃소싱)에 대한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23년에도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내수시장을 보호/육성하고 수출 판로를 다각화하고자 노력하려고 했지만, 3월에 IMF로부터 30억불 용자를 승인받으면서 앞으로 IMF 프로그램을 실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IMF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IMF에게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한 것이 이번이 17번째이며, 그 중 5번만 IMF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승인받은 30억불 구제금융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분할해서 지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 결재에 필요한 달러를 주재국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주재국 정부의 대규모 부채로 인해 재정 악화 및 루피화 평가절하가 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며, 정부의 세계 수입 확대를 위해 세수를 올려 국민들의 가계 지출 부담은 커진 상황이지만,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않고서는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외화 반출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외화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T/T 결재는 불가하며 L/C 180일 이상만 개설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중소기업은 L/C 개설이 전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스리랑카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지사나 스리랑카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은행 계좌를 싱가포르, 호주, 영국, 미국, 두바이, 심지어 세이셸, 파푸아뉴기니 등에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T/T 송금은 가능하다. 즉, 회사의 자금 융통 사정과 여력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내수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여 현지에서 제조하고(미래 관심 분야: 제약, 식품, 자동차, 전자, 기능성 의류 부문), 이를 수출로 연계하여 수출 중심 산업 구조로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산업의 원자재, 중간재 수입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수입 제한 품목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수출전 반드시 스리랑카 Department of Imports and Exports Control에서 스리랑카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를 확인 하기 바란다. (<http://www.imexport.gov.lk/index.php/en/>)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 전체 수출 동향

○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 국가는 2021년 자료로 미국(24.9%), 영국(7.6%), 인도(6.6%), 독일(6.1%), 이탈리아(4.7%), 네덜란드(3.5%), 벨기에(2.7%) 등인데 2022년도도 순위와 점유율이 비슷하다.

* 스리랑카>한국은 수출순위 28위로서 전체의 0.65%로 그 비율이 사실 미미하며, 옆나라 중국은 10위(2.2%), 일본 13위(1.8%)로, 스리랑카는 오랜 기간 주로 미국, 영국 포함 유럽국가, 그리고 인도, 두바이에 수출을 하였다.

□ 전체 수입 동향

○ 주요 수입 국가는 2022년 자료를 보면 인도(26.5%), 중국(20.4%), 아랍에미리트공화국(5.5%), 말레이시아(5%), 싱가포르(4%), 미국(2.3%), 대만(2.3%)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순위도 매년 비슷한 편이다. 오랜기간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종도 비슷한 인도로부터 수입을 많이하고, 중국은 스리랑카의 제 1채권국이자 중국 위안화로 통화 스왑을 가꿈하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로 수입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수입 순위 1,2위를 인도와 다툰다. 아랍에미리트(두바이)와 싱가포르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해마다 많은 스리랑카 인력이 파견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만 자체가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으로 국가 경제를 끌어가는데 대만의 아기자기한 중소기업 상품들이 스리랑카가 찾는 가격과 품질에 적합한 편이라고 본다.

* 한국은 수입 순위 18위로서 전체의 1.4%이다. 또한 '22년 스리랑카 국가 디폴트 영향도 있어서 한국->스리랑카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33.8%로 대폭 감소하였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171,052,400
2	인도	1,038,818,519
3	영국	1,014,241,660
4	독일	682,912,542
5	이탈리아	548,438,584
6	벨기에	360,039,731
7	일본	349,289,987
8	네덜란드	312,547,661
9	아랍에미리트	307,375,128
10	중화인민공화국	280,076,33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680,344,377
2	영국	968,425,514
3	인도	758,881,622
4	독일	641,425,335
5	이탈리아	486,272,864
6	벨기에	327,374,194
7	네덜란드	317,250,913
8	중화인민공화국	269,704,116
9	캐나다	244,490,762
10	터키	228,477,32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327,746,670
2	인도	1,044,162,550
3	영국	1,021,486,409
4	독일	848,811,807
5	이탈리아	633,810,401
6	중국	495,276,120
7	네덜란드	466,674,975
8	벨기에	371,366,955
9	캐나다	358,556,236
10	아랍에미리트	325,941,475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491,236,492
2	EU	3,262,405,221
3	영국	1,028,918,459
4	인도	912,566,616
5	독일	818,022,677
6	이탈리아	677,012,892
7	네덜란드	465,342,242
8	캐나다	400,780,122
9	아랍에미리트	386,709,089
10	벨기에	325,538,682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인도	4,248,758,224

2	중화인민공화국	4,114,731,987
3	아랍에미리트	1,565,782,304
4	말레이시아	910,504,368
5	일본	883,720,841
6	싱가포르	785,017,671
7	미국	573,385,297
8	타이	480,564,185
9	인도네시아	473,154,319
10	Other Asia, nes	438,840,020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661,700,356
2	인도	3,287,264,264
3	아랍에미리트	888,995,604
4	말레이시아	650,998,254
5	싱가포르	636,392,625
6	일본	538,287,352
7	미국	511,798,560
8	타이	391,263,589
9	인도네시아	352,081,970
10	파키스탄	344,556,98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5,124,570,906
2	인도	4,900,884,142
3	아랍에미리트	1,582,564,465
4	말레이시아	839,632,166
5	싱가포르	775,937,776

6	미국	574,899,594
7	인도네시아	499,850,510
8	일본	458,931,442
9	파키스탄	435,646,905
10	베트남	426,650,517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인도	4,627,024,976
2	중국	3,518,703,290
3	아랍에미리트	960,801,057
4	EU	959,979,443
5	말레이시아	908,925,151
6	싱가포르	743,109,120
7	미국	427,829,943
8	러시아연방	377,356,747
9	파키스탄	359,961,183
10	인도네시아	335,525,88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1년 자료를 보면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 품목은 의복-완제품(40.2%), 커피차(13.8%), 고무(9%)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연료(15.8%), 섬유-원단(14.3%), 기계류(16.5%)인데 이 비중도 해마다 거의 비슷한 편이다.

전세계 공급망 측면에서는 스리랑카에는 활성탄(HSCODE 380210)이 있어, 전세계 수출 국가 순위 중 5위이고 그 비중은 6.4%를 차지한다 (1위는 미국으로 비중은 14.9%이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676,063,924
2	621210	브래지어	641,735,594
3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94,003,861
4	401290	기타	338,808,008
5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35,362,858
6	271019	기타	328,031,354
7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320,740,083
8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95,085,216
9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29,406,576
10	890590	기타	205,788,35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717,837,183
2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63,504,119
3	621210	브래지어	497,614,368
4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315,880,494
5	401290	기타	297,290,797
6	271019	기타	285,733,761
7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57,203,743
8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19,179,525
9	090611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210,383,795
10	401519	기타	193,616,212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700,209,202

2	621210	브래지어	684,039,572
3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612,742,419
4	401290	기타	437,741,522
5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401,505,372
6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37,862,305
7	610821	면으로 만든 것	319,330,061
8	401519	기타	306,113,293
9	090611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241,413,948
10	530500	코코넛 · 아바카(마닐라마) ·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크(tow) · 노일(noil) ·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28,919,645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621210	브래지어	852,539,533
2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699,443,549
3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655,737,642
4	401290	기타	615,636,778
5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523,142,925
6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57,708,906
7	610821	면으로 만든 것	420,302,878
8	610910	면으로 만든 것	358,739,332
9	620342	면으로 만든 것	340,519,344
10	610711	면으로 만든 것	318,021,10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527,804,64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49,678,659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55,320,849
4	300490	기타	359,344,580
5	100199	기타	311,015,311
6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95,287,713
7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79,807,263
8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69,203,124
9	252329	기타	267,353,556
10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258,877,393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788,653,79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28,025,028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94,145,108
4	300490	기타	384,636,183
5	100199	기타	366,012,392
6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90,762,436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67,263,827
8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65,489,505
9	170199	기타	230,684,680
10	270112	유연탄	207,857,89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271019	기타	1,438,572,362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92,439,067
3	720711	황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14,490,921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89,548,987
5	100199	기타	433,177,168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7,434,460
7	300490	기타	389,842,826
8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49,720,342
9	271119	기타	325,135,648
10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314,414,73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163,620,411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829,121,765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89,194,693
4	300490	기타	352,642,546
5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343,295,150
6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283,228,738
7	100199	기타	249,546,796
8	170199	기타	246,076,953
9	271119	기타	230,306,458
10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221,824,334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 전반적인 여건

-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 종식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부활절 테러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부터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2023년 현재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 자국에서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아직은 가격에 민감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지만 점차 품질에 민감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서서히 변화해나가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다.
- 인프라, 건설, 항만 개발에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이 필요하다.
-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 의존 경제임에도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수입 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IMF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수입 해제 계획을 2023년 6월까지 제출하였으며, 2023년 10월부터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수입 규제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산업의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서 여전히 수출 기회 발굴이 가능하다.
- 우리 기업의 선별적, 집중적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며 물량에 집착하지 말고 향후 조립 생산 등 장기적 기술제공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 주요 품목별 수입전망

- 스리랑카 -> 한국의 수출은 매년 증가세로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1억 불을 넘기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여전히 봉제의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 코코넛 등 식물성 제품과 광물 제품 및 자연 원재료에 관련된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스리랑카의 한국 수출이 해마다 성장하면서 한국의 對스리랑카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 추세이다.

- 양국 연간 교역액(단위: 백만 불) : '20년(283) -> '21년(430) -> '22년(336)
- 對스리랑카 수출액(단위: 백만 불) : '20년(172) -> '21년(288) -> '22년(191)
- 對스리랑카 수입액(단위: 백만 불) : '20년(111) -> '21년(142) -> '22년(145)

○ 품목 : 對스리랑카 주요 수출 품목 중 합성고무(-43.3%), 윤활유(-17.6%) 및 합성수지(-49.6%)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의 경우 편직제의류(+20.9%), 직물제의류(+15.7%) 등이 증가하였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235	100	135
2020	172	111	61

2021	288	142	146
2022	191	145	46
2023	181	98	8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22년 한국-스리랑카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 스리랑카로의 수출의 경우 1위 합성고무(2200만 불), 2위 윤활유(1500만 불), 3위 편직물(1500만 불), 4위 합성수지(1100만 불), 8위 아연도강판(800만 불), 11위 의약품(500만 불)로 섬유와 산업용 원자재와 중간재가 수출 상위 순위에 있고, 수입의 경우 1위 편직제+직물제 의류(6200만 불), 3위 의류 악세서리(1400만 불), 5위 기타식물성재료(1100만 불), 6위 기타비금속광물(900만 불)로 주로 스리랑카에서 통제된 완제품 의류와 천연자원이 수입 상위순위에 있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0	0	0
2	2150	합성고무	22	0	22
3	1336	윤활유	15	0	14
4	4360	편직물	15	0	14
5	6212	알루미늄조각공품	8	0	8
6	6134	아연도강판	8	0	8
7	2140	합성수지	11	0	11
8	4342	폴리에스터직물	11	0	10
9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9	0	8
10	4213	면사	2	0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38	0	38
2	2150	합성고무	14	0	14
3	1336	윤활유	13	0	13
4	4360	편직물	12	0	12

5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9	0	9
6	6134	아연도강판	9	0	9
7	2140	합성수지	7	0	7
8	4342	폴리에스터직물	7	0	7
9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6	0	6
10	4213	면사	4	0	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4411	편직제의류	0	40	-41
2	4412	직물제의류	1	22	-21
3	4414	의류 약세서리	0	14	-14
4	4413	혁의류 및 기타	0	11	-12
5	0149	기타식물성재료	0	11	-11
6	1290	기타비금속광물	1	9	-8
7	3203	타이어	0	5	-5
8	0153	차류	0	3	-3
9	4490	기타섬유제품	0	2	-3
10	7251	건설중장비	0	3	-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4411	편직제의류	0	27	-27
2	4412	직물제의류	1	13	-12
3	4414	의류 약세서리	0	8	-8
4	4413	혁의류 및 기타	0	8	-8
5	0149	기타식물성재료	0	7	-7
6	1290	기타비금속광물	0	6	-6
7	3203	타이어	1	5	-4

8	0153	차류	0	2	-2
9	4490	기타섬유제품	0	2	-2
10	7251	건설중장비	0	2	-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에너지 저장장치

HS CODE	8507	수입액 (US\$백만)	50
수입관세율(%)	15	대한 수입액 (US\$백만)	0.1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는 현재 디폴트 상황으로 2022년 초부터 화력발전을 돌리는 연료 수입할 달리가 부족하여 전국적으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정전을 겪고 있음 - 스리랑카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발전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나, 풍력, 태양광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을때와 태양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시장동향	-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적합함		
경쟁동향	- 현재 에너지 저장장치 수입 자체가 많지 않지만(인지도가 적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80%를 차지함		
진출방안	- 에너지 저장장치는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진출이 가능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주로 해온 현지 대기업과의 협업을 대량 납품도 적합함		

○ 의료 장비

HS CODE	9018	수입액 (US\$백만)	53
수입관세율(%)	없음	대한 수입액 (US\$백만)	0.9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현지 정부의 의료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의료 장비 전량 수입 중 (현지 제조 기반 없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미국, 유럽, 일본산 순위로 수입 중 - 중국이 수입 순위 1위이나 일본, 미국, 유럽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국제 기준, 국제 평판을 갖춘 기계 수입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제 표준과 평판이 매우 중요 - 현지 에이전트의 평판이 세일즈에 크게 영향을 미침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에이전트와 NMRA 당국으로부터의 수입 인증이 반드시 필요 - 1품목에는 1개의 에이전트만 지정할 수 있음 - 정부가 가장 큰 구매자라는 점을 고려 		

○ 자동차 부품

HS CODE	8708	수입액 (US\$백만)	50
수입관세율(%)	20	대한 수입액 (US\$백만)	0.3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수리 시장이 확대되는 구조임 - 해당 산업에 대해 큰 규모의 OEM 제조가 스리랑카에 없음 		

시장동향	- 인도, 일본, 중국산이 시장을 독점 - 중국 제조업자가 일본/말레이시아/한국/인도산 자동차 수리에 대한 부품을 제공 - 부품을 다루는 에이전트 수가 많음
경쟁동향	- 가격이 핵심, 그래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
진출방안	- 스리랑카는 우측 운전대를 사용하므로 부품 수출 시 이점을 고려해야 함 -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 브랜드 차주는 한국 브랜드 부품을 구매하기 원하지만 자주 공급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람

○ 건설기계

HS CODE	8426	수입액 (US\$백만)	37
수입관세율(%)	없음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 대형 건설기계 제조 공정이 스리랑카에 없으며, 특히 크레인이 필요함 - 개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려고 하므로 신규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음		
시장동향	- 중국, 일본, 인도 순으로 수입 - 일본, 한국산 중고 기계에 대한 수요가 큼 - 크레인의 경우 새 기계 수입에 대한 수요가 있음		
경쟁동향	- 가격 때문에 중국, 인도산 기계를 주로 수입 - 일본산의 경우 중고의 품질도 새 기계 못지 않다는 인식이 큼		
진출방안	- 구매 후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품목이므로 현지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 - 일본산 수준의 품질을 원하나, 가격 수준으로 인해 대안으로 한국산을 찾고 있음		

○ 다목적농기계

HS CODE	8432	수입액 (US\$백만)	8
수입관세율(%)	없음	대한 수입액 (US\$백만)	0.01
선정사유	- 스리랑카는 농기계 제조 실적이 전무함 - 다목적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가장 원예를 장려하기 때문 - 수입 관세 없음		
시장동향	- 주로 인도산이 시장의 주를 이룸 - 가격에 민감한 시장		
경쟁동향	- 인도산 다음으로 중국산이 선택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진출방안	-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신용으로 우선 구매하고 수확 후 갚는 식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평판이 좋은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 -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합작으로 들어 올 수 있음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항만 물류 운송(수출/수입) 서비스

<p>선정사유</p>	<p>- 스리랑카는 콜롬보 항구 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으며 스리랑카를 통해 서남아시아 지역 물류 운송이 용이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p>
<p>시장동향</p>	<p>- 현재 항만 운송 서비스산업은 국가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약 20억 달러에 해당함 - 항만 및 항공 운송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30개의 해상 운송 에이전시와 120개의 화물 운송업자가 있으며, 500개 이상의 회사가 화물 운송 대행 중</p>
<p>경쟁동향</p>	<p>- Sri Lanka Port Authority가 항만 운송 산업 총괄 - 외국 기업은 단독으로 일 할 수 없고,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 필요</p>
<p>진출방안</p>	<p>- 항만 분야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입찰을 국제 공개 입찰이므로 진입 장벽 없으나,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 필요</p>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ISFTA)	인도	1998-12-28	2000-0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기준 규정: 수입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원부자재 FOB 가격 기준 최저 35%의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한 완제품으로서, 원부자재와 완제품 간 HS Code 첫 4자리가 달라야 한다. 다만, 수입원부자재의 10% 이상을 인도(스리랑카)에서 수입해 완제품 생산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내 부가가치를 최소 25% 이상만 창출하면 된다. 아울러 충분한 공정(sufficient process)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상품이어야 한다. ○ 현황: 스리랑카의 차, 향신료 및 의류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보다 기계화 된 의류 제조산업을 통해 스리랑카 의류제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해 인도의 의류 제조산업을 위축시키기도 했다. 양국의 주력산업 보호를 위해 교역 제한품목을 선정했는데 스리랑카는 농업, 가축, 고무, 제지, 철강, 기계류, 전기제품 등이고 인도는 의류, 플라스틱, 고무 등이다. FTA 체결 후 인도 정부에서 스리랑카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들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스리랑카 수출 제품의 관세 우위가 상당히 약화돼 수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자동차 조립 공장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어 부품 생산 및 공급 기지로서 스리랑카가 투자 적격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IT분야에서는 스리랑카 국민의 영어 구사능력이 우수해 인도의 BPO 보완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스리랑카는 주로 농업 및 가축, 술, 플라스틱, 고무 중 이류, 양말, 세라믹과 일부 전자기기를 포함한 약 1,200개의 제품이 Negative list(관세불인정 리스트)에 등재돼있다. 인도의 Negative list 품목은 음료, 고무, 플라스틱, 및 바닥재를 포함한 198개의 HS 항목이 확인된다.
파키스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PSFTA)	파키스탄	2005-06-12	2005-07-12	

스리랑카-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18-01-23	2018-05-01	2016년 7월 협상이 개시된 지 약 1년 반 만에 스리랑카와 싱가포르 간 FTA가 체결되었다.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사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15년간 싱가포르를 스리랑카에 대해 수출품목의 80%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2007-10-26	2008-01-01	1976년에 방콕협정으로 발효된 것으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동 협정의 목적은 원산지규정 도입, 관세 및 비관세 제거를 통해 ESCAP 내 개도국의 무역 확대를, 회원국 간에 특정 품목에 대해 양허관세를 실시 중이며 회원국별 자국의 양허관세 품목 및 양허관세율을 결정하고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별 양허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로써 최빈국에만 추가 제공되는 587개를 제외하고 총 4,270개의 품목이 관세 혜택을 받게 됐으며, 스리랑카의 주 수출품은 고무, 코코넛, 차 등이 있다. 더불어 스리랑카 자국 주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는 향신료, 세라믹, 과일류 등 약 25가지가 있다. 2017년 태국 방콕에서 4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각료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17년도에 시작될 서비스, 투자 무역촉진 등에 관련한 종합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4,270개 품목에 관련한 양허관세가 이루어졌던 3차 각료회의에 비해, 4차 각료회의는 10,700개 품목에 관한 양허관세가 논의됐다.

<자료원 : Department of Commerce>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p>중국-스리랑카 FTA</p>	<p>중국</p>	<p>중국-스리랑카 FTA는 스리랑카 내 FDI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함을 주요 골자로 할 예정이다. 스리랑카는 2013년 상반기 FDI 금액은 전년 대비 약 20% 상승한 5억 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서비스업 및 농업 순이다. 또한, 스리랑카 투자청은 프로젝트 온라인 신청 시스템 등 FDI 증가를 위한 관련 시스템 개발과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p> <p>2013년 11월 스리랑카에서 개최됐던 영연방정상회담(CHOGM)에서 논의를 하는 등 2014년 중으로 중국-스리랑카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스리랑카 투자청이 발표했었으나, 협의 사항이 많고 2015년 스리랑카 내 대선 및 총선을 통한 정권 교체 때문에 FTA 체결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새롭게 선출된 시리세나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와 더불어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및 관광 유치 등을 통한 동반 성장 목표를 공유했다.</p> <p>2016년 8월과 11월에 각각 콜롬보 및 베이징에서 열린 FTA 회의에서 두 나라는 무역기반, 각 국간 기술적 무역 장벽, 서비스 무역, 투자, 협력 및 경제기술 협력 등의 긍정적인 토의를 거쳤다고 발표했다.</p> <p>2017년 1월 16~19일 두 나라는 콜롬보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쳤다. 이전과 비슷한 항목에 관해 논의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p> <p>그 후 지금까지 특별한 진척은 없는데, 양쪽이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여전히 있다.</p>	<p>논의중</p>
--------------------	-----------	--	------------

태국-스리랑카 FTA	태국	<p>스리랑카는 2023년 3월 27~29일에 태국과의 4차 FTA 협상을 하였다. 이를 통해 태국으로의 연간 총 수출액을 5.5억 불에서 15억 불로 늘리고자 할 뿐만아니라 태국 시장을 통해 다른 ASEAN 국가로 접근성을 높리며 현존하는 비관세장벽을 줄이고자 한다.</p> <p>스리랑카는 본 협정에 대한 최종 서명을 2024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p>	논의중
-------------	----	--	-----

<자료원 : Department of Commerce>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스리랑카는 1978년 들어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 오다, 1994년부터는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입자유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 '선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공급했던 방식을 벗어나 스리랑카 국내 제조 산업을 진흥하여 수출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장기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에는 IMF의 권고대로 다시 수입 제한 전면 해지를 공표 하였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투자가 수출을 견인하고 수출이 경제성장을 리드하는 경제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입 관련 무역조치는 관세, 수입허가, 부과금(additional charges and taxes)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없고 반덤핑, 상계관세는 2020년 12월부터 입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입 제한 품목은 Sri Lanka Department of Imports and Exports Control에서 상시 확인해야 하며, 새로 마련된 반덤핑, 상계관세는 차후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Sri Lanka Department of Commerce 법무팀과 확인하여야 한다.

<한시적 수입 금지 품목>

스리랑카 수출 수입 규정과 금지품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http://www.imexport.gov.lk/index.php/en/downloads/gazette.html>).

2023년 10월 9일자로, 스리랑카는 HS CODE 87을 제외한 모든 수입 제한이 해지되었다. 이는, IMF로부터 긴급구제융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단계적 수입해지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는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T),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항공항만세(PAL),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 등의 다양한 수입부과금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IF 가격 대비 10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VAT), 물품세(Excise)는 수입품과 내수품에 모두 부과되고,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 항공항만세(PAL), 항만처리비(Port Handling Charge), 특별품목세(Special Commodity Levy)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단위세율(unit rate)에 따라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2002년에 도입되었는데, 스리랑카 현안인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11%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2018년 9월에는 부가가치세 대상품목이 추가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일반 품목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선별된 품목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국가재건세는 폐지되었다. 2022년 9월 1일부터 표준 부가가치세는 15%로 변경되었다.

항공항만세(PAL)는 2023년 1월부터, 「Ports and Airports Development Levy Act No. 18 of 2011」의 Section 3을 수정하여 일반 수입품에는 5%, 특별 선정 품목에는 7.5%~10%라는 2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는 자국 수출 진흥을 위해서 2004년부터 부과되었는데, 담배, 석유제품, 탄산수, 주류, 맥주, 자동차, 전자제품 등 637개의 품목들과 187개의 HS CODE에 부과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

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13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2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한편,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일 농축산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속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동식물, 씨앗, 생피 등의 수입은 특별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국의 검역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수입허가서에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 방법(인증서)을 명시해 준다.

그밖에 화학제품 전반(비료, 살충제, 취약, 살균제, 제초제), 바틱(Batik) 인쇄된 남성/여성/아동복 수입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위 제품군에 대하여 2020년 8월 이후 규정상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수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새로 업데이트된 규정들은 <http://www.imexport.gov.lk/index.php/en/downloads/gazette.html>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TBT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 관련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수입표준 및 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2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 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참고로,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일 농축액,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속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수입 관세율 폭은 0%, 15%, 20%,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0%, 중간재 15%, 완제품은 20% 적용 폭에 해당되는데, 만약 어떤 제품이 종가세율과 특별세율 모두에 해당된다면,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CESS(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45%, PAL(항만세)은 5~10%, VAT(부가가치세)는 15% 비율로 부과되며, SCL(특별

상품부담금)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는 별도로 Excise Tax(내국소비세)가 일반적으로 300%가 부과되는데 그 범위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농업 진흥 정책으로 농업 분야의 수입 관세는 비료, 기계류의 경우 면제이며 (0%), 산업용 중간재의 경우 관세율은 15%이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비 필수재에 해당하는 사치품과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에는 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CESS)가 부과되는데 이때의 CESS 관세율은 50%, 70%, 165% 구간이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 및 기타 차 종류(HS코드 09류 품목)에 25% CESS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는 1976년 협정이 발효된 이래 3차례 상품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했고,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 타결에 합의, 2017년 1월 최종 마무리되었다. APTA 양허품목은 기존 4,270개에서 1만 677개로 늘어나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2019년에 제5라운드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최종 협상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 1) 스리랑카 관세청으로 접속한다 : www.customs.gov.lk
- 2) 상단 메뉴에서 "Business"를 클릭한다 ->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Customs Tariff and Tax Changes"섹션을 찾는다.
- 3) 파란색 상자의 "Customs Import Tariff 2023"를 클릭하여 상품별 관세율을 확인한다.
- 4) 기타 새로운 개정 변화가 있을 경우 아래 리스트에서 공지를 확인한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Colombo Port, Galle Harbor, Trincomalee Harbor, Hambantota Port 4개가 있다. 그 중 Colombo Port가 경제중심지인 Colombo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하며 그 다음으로는 인도와 가까운 Trincomalee가 2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다룬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1위 Colombo Port (101,926 MT), 2위 Trincomalee Harbor (3,200 MT), 3위 Hambantota Port (1,200 MT), 4위 Galle Harbor (510 MT)이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Negombo근처에 위치한 (Colombo에서 차로 약 50분 소요) Bandaranayake International Katunayake 공항이 메인이고, 서브 공항으로 남쪽의 함반토타에 위치한 Mattala International Airport 가 있다 (Colombo에서 차로 약 3시간 소요).
- 주요 공항 물동량: 반다라나야케 공항에서는 250,000 MT 물량과 연간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6백만 명이다. 마탈라 공항은 45,000 MT 물량과 연간 백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스리랑카에서 2016년 1월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수출입 과정상의 많은 장벽이 줄어들고, 통관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여지도 감소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모든 서류가 구비된 경우 화물통관은 평균 4시간 내로 가능하며, 약 80%의 화물이 당일 내로 통관절차가 완료된다고 한다. 현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관리 기업 중 투자청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컨테이너가 산업단지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보다 검사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전자화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수출입업자 등록은 먼저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 등록을 해 납세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고, 다음으로 세관에 수출입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납세번호를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http://www.ird.gov.lk/en/Downloads/SitePages/Forms.aspx?menuid=1603>)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스리랑카 관세청의 수입담당 부서는 콜롬보 항의 해상화물과 콜롬보국제공항(Bandaranaike International Airport)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뉜다.

수입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명된 세관신고서(CUSDEC: a Completed Customs Declaration)를 기타 수입 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품 종류에 따라 세관신고서 제출 전에 허가 및 증명서 등이 필요하기도 하고 스리랑카 세관은 특정 수입화물의 반출에 앞서 수입허가품목의 경우 관련 정부기관(Import and Export Control Department, 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 Health Department 등)으로부터 필요한 수입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내 차(tea)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리랑카 차 위원회(The Ceylon Tea Board)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수입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 관련 서류는 케이스별로 다르나 대체로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Exchange Document, 인보이스, 패키징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있다.

통과 화물(보세지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 화물)에는 제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울러 선적 전 검사 제도도 없다.

EAN(International Article Number System) Numbering System은 상품 코드의 약칭으로 일종의 국제 무역 용어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101개의 기관이 가입돼 있다. 스리랑카에는 EAN Sri Lanka에서 EAN Bar Code 번호를 할당 부여하고 있다. 한편, Uniform Product Code(UPC)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특별 코드 시스템으로서 스리랑카 무역업체가 필요한 경우 EAN 스리랑카에 요청하면 된다.

기타 일반수입품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통관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이삿짐, 샘플 등 소량을 해상 운송 시 세관통관(Custom's Clearance)은 개인이나 일반업체가 아닌 관세사가 있는 세관에 등록된 운송업체가 해야 한다. 아울러 Demurrage 비용(수입품의 정박 초과료)이 일수에 따라 아주 급격한 누진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마찰로 인해 통관검사가 늦어져 과다한 정박 초과료가 발생하곤 한다. 이 정박 초과료를 누가 부담할지는 또 다른 분쟁 거리가 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통관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특히 BOI 관리기업 중 BOI가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단지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 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므로 편리하다.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해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하에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은 통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EMS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령 주소지까지 현지 EMS 업체에서 배달토록 되어 있지만, 통관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물품이 다소 클 경우에는 EMS 픽업센터로 직접 가서 세관 담당자의 간단한 확인 하에 통관을 시키고(필요 시 관세 지불)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들이 있다.

○ 통관에 대한 FAQ 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customs.gov.lk/import/home>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기관에 하면 된다.

Sri Lanka Customs Information Center

전화번호: +94 1121434343

업무시간: 9:00 ~ 16:30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Lanka Shipping & Logistics (Pvt) Ltd

주소	Lanka Shipping Tower, 99, St. Michael's Road, Colombo 3, Sri Lanka
전화번호	+94 11 468 1700
이메일	patali@lankaship.lk

홈페이지	http://www.lankaship.lk
------	---

○ Cargo Boat Company Limited

주소	66 Vivekananda Hill, Colombo 0013, Sri Lanka
전화번호	+94 11 742 2240(-2)
이메일	inam@cargo-boat.com
홈페이지	http://www.cargo-boat.com

○ Advantis Freight (Pvt) Ltd

주소	400 Ven Baddegama Wimalawans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전화번호	+94 11 2167764
이메일	inam@cargo-boat.com
홈페이지	https://advantis.world/freight/about-advantis-freight
비고	2019년 하반기 부터 콜롬보 무역관의 협력 물류사로 지정되었음.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직후 필리핀, 미얀마 등과 함께 아시아의 선도 국가군을 형성했다. 그러나 1971년과 1989년, 2차례에 걸친 공산 반군의 준동과 1983년부터 시작된 26년간의 내전, 그리고 2004년 12월에 덮친 쓰나미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World Bank가 작성한 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 내 사업개시 용이성 2위, 2019년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스리랑카를 권역 내 인프라 품질 2위, 인적자원-기술부문에서 서남아시아 1위로 발표하였다.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헌법에 투자보호 조항(157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모체가 되는 투자법(Law No.4 of 1978, 일명 BOI Act라고도 함)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투자법은 1980년, 1983년, 1992년, 2002년, 2009년, 2012년에 수정됐으며, 이 모법을 근거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자세한 법 조항이 궁금하다면 다음의 사이트를 클릭하기 바람: <https://investsrilanka.com/boi-act-2/>)

1977년부터 제조업 분야의 육성, 수출증대, 기술개발, 고용 증대 등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했다. 스리랑카 투자환경은 '100% 외국인 단독 투자 허용, 설비재, 원부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법인세 면세기간, 기업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투자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스리랑카 헌법은 외국과 체결한 쌍무투자협정은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157조에 명시하고 있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또한 관계법규 및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자보장 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이 있고, 이중과세방지협정국으로는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8개국이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자금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이면에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등 투자제한조치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데, 외국기업이 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양도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외국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 단,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상의 법인이면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구매가 아닌 임대는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100% 일시 사전 현금 지급 완료조건으로 아파트 구매 및 100% 소유가 가능하다.

2022년 5월 기준, 스리랑카의 최저투자금액은 수출품 생산기업(「투자법」 17조 해당기업)의 경우 5십만 달러이고, 내수시장용 제품생산 또는 판매기업(「투자법」 16조 해당기업)의 경우 5백만 달러로서, 수출가공용 원부자재 수입과 수출 및 내수시장용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용 기계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된다.

이외에도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자계약서상 주요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다 보니,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자,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세관의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면서,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 투자 보장 협정국(28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 이중과세 방지 협정국(44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UAE,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프랑스, 독일 등
- 인도-스리랑카 FTA : 4,233개 품목 무관세, CEPA는 양국 간 협상 중
- 파키스탄-스리랑카 FTA : 4,680개 품목 무관세
- EU GSP + : 7,200개 품목 무관세

현재, 스리랑카 투자청(BOI)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투자 유치 분야로는 수출 기반 제조업, 수출 기반 서비스업, 관광업 및 관광업 연계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고학력 및 고도기술 개발, 전략적 부가가치 프로젝트, 농업(농업, 수산업 관련 산업, 낙농업), 산업부동산 (Industrial Estate), 특수경제 지역(Special Economic Zones), 지식도시(Knowledge Cities) 등이 있다.

투자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산업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열려있고, 100% 외국인지분 보유가 가능하며, 100% 본국 송금을 허용한다. 규모가 있는 투자건은 투자청과의 직접단독협상 방식도 열려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

투자인센티브

2008년 이후 정부 재정적자 확대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에 대해 우호적이다. 특히 2012년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대폭 낮추는 한편, 조세 감면 폭을 높이는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2014년도에도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는 등 부분 개편이 있었으며, 2016년부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와 같은 새로운 투자 방법의 활성화 및 토지 소유의 개혁, 자유화를 추진하여 2021년에는 투자가 더 용이해진 국가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 이익배당의 자유, 자유로운 주식양도 및 면세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입이나 임차가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2개 종류(BOI법 17조에 따른 우대조치, BOI법 16조에 의한 통상 국내법상의 우대조치)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우대조치 수혜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투자분야, 고용, 투자지역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법인세 면세(Tax Holiday)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와 서남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 간의 FTA가 2000년부터 발효됐으며, 인도시장으로 수출 시 4,233개 품목이 무관세 대상품목이다. 그러나 '13년 7월 CEPA 체결이 수포가 되면서 CEPA가 체결될 경우 무관세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들었다.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우회진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스리랑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인도-스리랑카 FTA의 무역확대 효과를 보면 2000년 3월 발효 이래 양국 간 무역은 크게 증가해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출 비중은 2000년 1% 미만에서 2017년에는 스리랑카 총수출의 6%를 차지했으며,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2000년에 8%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스리랑카 총수입의 약 21%를 기록했다.

인도시장을 겨냥한 투자일 경우 인도에 투자하는 것보다 스리랑카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노동인력이 우수하면서 온순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울러 콜롬보 항 및 함반토타 항을 인도 및 서남아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함반토타 항 배후지에 대단위 EPZ(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 및 보세구역 설정을 통해 조립산업을 육성, 인도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려고 해 외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2021년, 새로 개정된 세금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은 경우 모든 세금 면제 협상이 가능하다.

- 농업/어업/목축업(5년), 해상풍력 및 부유식 태양광 발전(7년), 보트 및 선박 제조(7년), 우유 분말 가공(5년), 사교육 기관(5년), 벤처기업(5년), 건설자재에 대한 재활용부지 (10년), 건설 및 통신타워 설치(5년), 보세 및 오프쇼어생산 창고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스리랑카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에게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상 시도가 가능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금지 업종은 다음과 같다.

- Pawn broking
- Retail trade with a capital of less than One Million US Dollars
- Coastal Fishing

다음은 제한 업종으로서 외국인 지분은 40%까지만 가능하다.

- Production of goods where Sri Lanka's exports are subject to internationally determined quota restrictions
- Growing and primary processing of tea, rubber, coconut, cocoa, rice, sugar and spices
- Mining and primary processing of non renewable national resources
- Timber based industries using local timber
- Fishing (deep sea fishing)
- Mass communications
- Education
- Freight forwarding
- Travel agencies
- Shipping agencies

정부의 특별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Air transportation
- Coastal Shipping
- any industry manufacturing arms, ammunitions, explosives, military vehicles and equipment aircraft and other military hardware; any industry manufacturing poisons, narcotics, alcohols, dangerous drugs and toxic, hazardous or carcinogenic materials; any industry producing currency, coins or security documents;
- Large scale mechanized mining of gems;
- Lotteries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스리랑카는 투자유치청(BOI)에 의해서 수출전용단지(EPZ: Export Processing Zone), 산업단지(IP: Industrial Park) 등을 전국적으로 약 20개 운영하고 있으며, 동 단지 내에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비자발급에서부터 노무 문제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으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BOI 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산업단지

◦ Biyagama EPZ

규모	531.54에이커
----	-----------

위치	Gampaha와 콜롬보 공항 중간 지점에 위치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US \$5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 Ground Rent: US\$ 4,235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Meter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Meter <p>단, BOI에서 부과하는 경비 및 세전 가격 기준임(세부내역은 공단에 연락하기 바람)</p>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r. K Kumarasinghe ○ Designation: Director (Zone) ○ Office: +94 11 2465212 ○ E-Mail: kithsirik@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 Katunayake EPZ

규모	531에이커
위치	콜롬보 공항 근처(콜롬보와는 29km)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US \$60,000 per acre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 Ground Rent: US \$466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Cubic Meter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Cubic Meter ○ Solid Waste Disposal Charges: Rs. 605.00 per Metric Ton <p>단, BOI에서 부과하는 경비 및 세전가격 기준임(세부내역은 공단에 연락하기 바람).</p>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r. A S K T Ranjan Sibera ○ Designation: Director (Zone) ○ Office: +94 112252362 ○ E-Mail: ranjans@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 Koggala

규모	227 Acres
위치	Southern Province, Galle District, Habaraduwa Divisional Secretariat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US \$3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30 years) ○ Ground Rent US \$ 5,650.0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75.00 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Waste Water Charges from 01.04.2022 - Rs.30.00 from 01.01.2023 - Rs.40.00 from 01.01.2024 - Rs.50.00 ○ Solid Waste Disposal Charges Rs.8.50 per Kilo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r. H S K Fernando ○ Tel: +94 91-2283372 ○ Email: fernandos@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	--

◦ Kandy

규모	200 Acres
위치	Central Province, Kandy District, Kundasale Divisional Secretariats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 US \$1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Ground Rent US \$5,130.0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75.00 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Gully bowser -1500/- per load + Rs 60 / - per km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r. H S K Fernando ◦ Tel: +94 91-2283372 ◦ Email: fernandos@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 Mirigama

규모	261 Acres
위치	Western Province, Gampaha District, Mirigama Divisional Secretariats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 US \$30,000 per acre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30 years), Ground Rent US \$5130.0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75.00 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 Solid Waste Disposal Charges : Rs. 4,600.00 per Metric To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r. Mr. A S Subasinghe ◦ Tel: +94 33-2274657 ◦ Email: subasinghes@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 Malwatta

규모	3 Acres
위치	Western Province, Gampaha District, Attanagalla Divisional Secretariat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 US \$30,000 per acre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30 years), Ground Rent - US \$5130.0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Waste Water Charges Rs.30.00 per cubic meter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ame: Mr Mr. R A P K Ranasinghe o Tel: +94 33-2296620 o Email: priyanthar@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o Seethawaka

규모	431 Acres
위치	Western Province, Colombo District, Seethawake Divisiona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Land Premium - US \$6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Ground Rent US \$4,660.00 per acre per annum o Water Charges 75.00 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o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m3 o Solid Waste Disposal Charges Rs.3593.70 per Metric Ton (50% for the cost)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ame: Mr. Ananda Gunawardhana o Tel: +94 36-2231082 o Email: anandag@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o Mirijjawala

규모	565 Acres
위치	Southern Province, Hambantota District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Land Premium - US \$2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30 years), Ground Rent US \$4,235.00 per acre per annum o Water Charges 75.00 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Name: Mr. S S M Abeysekara o Tel: +94 47-2258800 o Email: senakaa@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

o Wathupitiwala

규모	123 Acres
위치	Western Province, Gampaha District, Attanagalla Divisional Secretariat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 US \$5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Ground Rent US \$4,660.0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m3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r. T M D Thilakaratna ○ Tel: +94 33-2281386 ○ Email: thilakd@boi.lk
비고	<p>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p>

○ Horana

규모	391 Acres
위치	Western Province, Kalutara District Ingiriya Divisional Secretariat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 US \$ 3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Ground Rent US \$ 4660.0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m3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r. Sujeewa Thilakumara ○ Tel: +94 34-2269752 ○ Email: sujeewat@boi.lk
비고	<p>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p>

○ Polgahawela

규모	65 Acres
위치	North Western Province, Kurunegala District, Polgahawela Divisional Secretariats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 US \$ 20,000 per acre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30 years), Ground Rent US \$ 5,130.0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per m3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 Rs. 30.00/per m3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r. A S Prasanna Kumara ○ Tel: +94 37-2241526 ○ Email: prasannak@boi.lk
비고	<p>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srilanka.com/zones-contacts/</p>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유치청(BOI)〉

주요 지역별 여건

○ **함반토타**

함반토타 의약품 제조 산업단지는 투자청에서 스리랑카 내 제약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에 조성한 구역으로,

- 최소 투자금: 1천만불
- 법인세 면제 가능하며, 기간은 2년, 5년, 10년으로 결정됨

* 최소 투자금은 품목과 투자 제안서 내용에 따라 스리랑카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와 직접 협상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 외국인 투자 환경

- 투자 보장 협정국(28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이 있다.
- 이중과세 방지 협정국(44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UAE,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프랑스, 독일 등이 있다.
- 인도-스리랑카 FTA : 4,233개 품목 무관세, CEPA는 양국 간 협상 중에 있다.
- 파키스탄-스리랑카 FTA : 4,680개 품목이 무관세이다.
- EU GSP + : 7,200개 품목이 무관세이다.
- 싱가포르-스리랑카 FTA의 경우는 FTA는 체결했지만 그 시행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 스리랑카 투자청(BOI)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투자 유치 분야로는 수출 기반 제조업, 수출 기반 서비스업, 관광업 및 관광업 연계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고도기술 개발, 전략적 부가가치 프로젝트, 농업(농업, 수산업 관련 산업, 낙농업), 산업부동산(Industrial Estate), 특수경제 지역(Special Economic Zones), 지식도시(Knowledge Cities)를 꼽는다.
-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핵심 산업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열려있고, 100% 외국인 지분 보유가 가능하며, 100% 본국(외국으로의) 송금을 허용한다고 투자청은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은 투자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2021년에 새로 개정된 세금 인센티브로는 농업/어업/목축업(5년), 해상풍력 및 부유식 태양광 발전(7년), 보트 및 선박 제조(7년), 우유 분말 가공(5년), 사교육 기관(5년), 벤처 기업(5년), 건설자재에 대한 재활용부지 (10년), 건설 및 통신타워 설치(5년), 보세 및 오프쇼어생산 창고의 경우 모든 세금 면제 협상이 가능하다고 투자청은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은 투자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한 법들이 아직도 유효한 경우가 많고 영국식 법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스리랑카 투자청과 협상 시 조율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필요 분야

- 콜롬보 항 및 함반토타 항을 인도 및 서남아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함반토타 항 배후지에 대단위 EPZ(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 및 보세구역을 설정하였다.
- 교통(도로 개발/중양고속도로), 주거(신규 아파트), 환경(매립지/수질개선), 해양 및 항공(공항 및 항구의 현대화), 산업 및 관광, 과학 기술, 생태,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권역별 프로젝트 발주 예정 및 유치를 희망한다.

□ 투자 여건

-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이 자유로운 반면, 지나친 외환통제와 경직된 노동법, 기본 노동 정신 부족 및 근로자 태도 문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됨에도 보수적인 사회 문화, 열악한 부품산업기반, 시장협소, 높은 관세 등이 걸림돌이다.
- 각종 투자규제를 줄이려고 노력하며, 외환관리 완화, 공장부지 안정적 확보, 비자 발급 편의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제도 개편도 추진중이다.
- 스리랑카 최대 도시인 콜롬보 지역과 지방 간에는 생활과 문화 수준의 격차가 크고 근로자 수준 역시 차이가 크다는 점을 투자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선진국처럼 국가 전 지역이 거의 평준화 된 상황이 아님), 이는 향후 근로자 선발과 그 지역에서의 사업 운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스리랑카 전체 투자유치 현황

- 2022년 스리랑카 투자청(BOI)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금액 (FDI)은 약 10억 불이며, 스리랑카의 성장을 위해서는 FDI 유치가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지금까지 FDI 유치 금액은 연평균 12억 불 정도이다.
- 주요 투자국은 인도(238백만불), 싱가포르(111백만불), 모리셔스(117백만불), 영국 (102백만불)이다 (2022년 기준).
- 주요 투자유치 분야는 항구/인프라(54%), 제조업(33%), 서비스(13%) 부문이다.
-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로는 국가적 차원의 금융, 관광, 물류 강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콜롬보 포트시티(Colombo International Finance City라고도 불림) 개발 및 투자유치를 홍보 중에 있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1614.04	743.47	434.08	597.52	898.29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스리랑카는 2022년 상반기부터 경제위기(디폴트)로 인해 현재 IMF로부터 긴급 구제 금융을 받고 있으며, IMF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만하는 상황 등으로 최근 대외 직접 투자액은 미미하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67.86	77.36	14.54	17.44	15.13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스리랑카 투자청(BOI)에 따르면, 한국의 현지 투자 건수는 약 60여 건에 달하지만, 생산 시설이나 법인 설립 등의 그린필드형 투자는 약 20여 건에 불과하다. 저렴한 임건비, 높은 교육 수준, 인도양 물류 유통 이점 등으로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는 섬유·의류 분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해외투자 선호 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중국, 베트남 등이 임가공 유망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의류 분야 주요 수출국이 수입 쿼터를 적용하면서 우리의 현지 투자가 감소하였다.

OEM제조 지역으로서 전통적 비교우위가 있지만, 한국 기업에게는 동남아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고 최근 가중되는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으로 현지투자는 더욱 감소하였다. 게다가 서남아는 동남아에 비해 물류 운송시간이 더 소요되고, 문화적 거리감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투자기업은 카니발월드(고무풍선, 장갑), 구룡랑카(의류원부자재), 스카이라인(야구공), 세라믹월드(도자기장식품), 사우스아시아어페럴(의류생산) 등이 있다.

스리랑카는 KOICA(ODA), 수출입은행(EDCF) 등 원조기금을 통한 유/무상 원조 연계형 투자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병원기자재 분야 차관사업, 상수도 사업, 콜롬보 철도 현대화 사업, 다목적 여항 개발 사업, 학교 기자재 납품 등이 고려 가능한 분야이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Priority Partner Country)이며, 그간 우리 나라는 도로·교통, 수자원, 교육, 의료, 공공분야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4	0	2,100	13	1,946
2022	1	0	1,017	5	518
2023	0	0	0	3	35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투자진출기업의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개점휴업 및 중복투자건 제외 시 진출기업수는 20여개 정도로 축소해서 볼 수 있다. 주로 건설 및 의류 제조업 위주로 진출해 있고, 대표적인 건설 사업체명은 현대건설 (콜롬보 항만 방파제 공사, 주상 복합 건축물 공사), 코오롱 글로벌(수처리 공사 - 취수, 정수, 배수, 관개), 경남기업(도로, 아파트 공사)가 있다. 하지만 건설의 경우 코오롱 글로벌의 수처리 건설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존 건설 수주건이 모두 완료 시점에 있어 이마저도 철수 계획에 있는 상황이다. 대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주로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스리랑카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1,470	10	1,773
건설업	1	0	500	2	8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0	130	1	8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1,017	5	51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0	0	0	3	35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카니발월드코랑카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고무, 플라스틱
모기업명	한국카니발

○ 엘피스랑카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복
모기업명	이랜드월드

○ 세라믹월드

진출연도	198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도자기장식품

○ 구룡랑카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류용패딩

○ 형제코루게이티드랑카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박스(골판지)

○ 구상랑카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스포츠장갑

○ 에스에스랑카글러브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고무장갑

○ 영안랑카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모자
모기업명	(주)영안모자

○ 효성오앤비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유기질비료
모기업명	효성오앤비

○ 세라젬랑카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업
취급분야	의료용기기
모기업명	(주)세라젬

○ 스카이라인베이스볼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야구공
모기업명	스카이라인스포츠

○ 신우량카

진출연도	198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라텍스완구

○ 코오롱글로벌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코오롱글로벌

○ 현대건설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현대건설

○ 경남기업

진출연도	1978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경남기업

○ 삼성전자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소매업
취급분야	삼성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대한항공콜롬보지점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상황)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대한항공항공서비스
모기업명	대한항공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외국인 투자가는 스리랑카 투자청(BOI-Board of Investment Sri Lanka) 또는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또는 협상) 이외에 회사설립 신고만으로도 되는 분야일 경우에는 등기소(DRC)에 등록하는 절차만을 통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 스리랑카 투자청 관리대상 희망기업은 투자청과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조세 감면 및 투자청으로부터의 행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수출품 생산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이 해당한다.

○ 취약분야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관련 부처와 직접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협상코자 할 경우이다. 주로 단일공사 프로젝트 추진 또는 PPP형 BOT 공사 추진 시 관련 부처의 경쟁입찰 수주나 수의계약을 통해 투자가 진행된다.

○ 스리랑카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이나 유통서비스업 중 외국인투자 사전 승인 분야가 아닌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로서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 등기소를 방문해 회사 설립 신고절차만 거치면 된다.

○ 법인 설립절차

- Registrar of Companies에서 같은 회사 이름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명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 회사의 정관(memorandum) 또는 인가서에 대한 공인된 사본과 함께 Form 44, Form 45, Form 46 을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현재는 홈페이지 하단에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https://www.drc.gov.lk/en/>)

○ BOI(스리랑카 투자진흥청) 소속 투자기업의 경우 Inland Revenue Act No 24 of 2017 조항에 따라 ECA(Enhanced Capital Allowances)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출용 제조 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십만 달러이고, 법인세 14%, 수출을 위한 원자재 및 공정 기계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내수용 제조 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백만 달러이고, 법인세 18%, 공정 기계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지사

1) 지사(Overseas Company)

○ 외국인 투자가의 스리랑카 내 지점(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설립 시 이를 통해 Overseas Company(Corporate Act 2007에 근거)로 칭한다.

○ 요건만 구비하면 등기소(DRC)에 등록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2) 지점(Branch Office)

○ 모기업 현지 사무소로서 지점 설립의 목적은 모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고, 모기업의 전략에 따른 판매활동 전개 등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사와 현지법인 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책임 소재에 관한 것으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법적 책임이 현지법인에 귀속되지만, 지점의 경우는 모기업에까지 그 책임소재가 있다.

○ 지점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 Industrial Activity)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5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는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다.

○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의 영업분야가 소매업(Retail Trade)일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투자 금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유는 자본금 10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이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

상기 지점(Branch)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 Industrial Activity)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형태로,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낙찰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동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수입 및 지출업무는 가능하다. 프로젝트 종료 시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국가 디폴트 상황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는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하고 현재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자를 단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p> <p>2) 스리랑카 기업들의 낮아지는 신용도 외환보유고 문제와 주재국 정부의 수입 및 대금 결제 제한으로 스리랑카 기업들과 은행 신용등급에 변화가 있었다.</p> <p>3) 자주 바뀌는 정책 ○ 스리랑카 수입업자의 경우: 2021년 9월 8일부터 스리랑카 수입업자는 수입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금 결제 시(신용장 개설 시) 그 수입금액과 100%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예금잔액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L/C 90~180일로 수입 대금 결제 신용장을 작성해도, 수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바로 그 날짜에 그 금액과 100% 상응하는 현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증명하라는 얘기이다.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금융 활동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 스리랑카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을 한 후 받은 외화 결제대금을 일정 시일 안에 반드시 루피로 환전하여 중앙은행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외화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재국 정부에서 수출대금으로 들어온 외화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 위 두 정책은 2021년 9월부터 새로 생긴 정책인데, 이 밖에도 금융 정책이 자주 바뀌므로 수시로 확인 및 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위 두 정책은 스리랑카 정부가 얼마나 외화가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p> <p>4) 부족한 비즈니스 시스템 2020년 세계은행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90개 국가 중, 스리랑카는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순위 132위, 상업 분쟁에 대한 법률적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 소요액에 대한 국가순위 164위, 지급 불능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간, 비용, 그에 따른 회복 비율에 대한 국가 순위는 94위이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입이 불요하다.
- 최소 7명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최소 2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참석자(의결권 보유기준)의 75% 이상이다.
-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며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주식회사는 상장기업(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기업명 끝에 PLC로, 비상장 기업(Limited)의 경우 Ltd.로 표기한다.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와 같이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납입이 불필요하다.
- 최소 2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투자자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1명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Share)을 공개 모집(Public Subscrip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이 개인(Private hands)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책임한계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아울러 출자금 공개모집을 원할 경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해 추진하면 된다.
- 1인 유한회사는 없다.
-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현지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하고 있다.
- 유한회사는 기업명 끝에 (PVT) Ltd 또는 (Private) Limited로 표기한다.

개인사업자

회사 형태가 아닌 Proprietorship 형태를 취하는 영업 행위로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이 있고 외국인에게는 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D. L. & F. DE SARAM

전화번호	+94 11 2 695782
주소	No.47, C.W.W. Kannangara Mw. (Alexandra Place), Colombo 7,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desaram.com
이메일	info@desaram.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Julius & Creasy

전화번호	+94 11 470 8300
주소	No. 41, Janadhipathi Mawatha, Colombo 1,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juliusandcreasy.com
이메일	info@juliusandcreas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외환관리는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근거해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 외환관리국이 관할하고 있다

환율 결정은 관리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의해 중앙은행의 환율변동 관리위원회(Managed Floating Committee)가 주요국 통화와 SDR을 감안해 매일 발표한다. 주요 교역상대국 6개국(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인도)의 물가 동향 및 화폐가치 변동과 자국의 물가동향 등을 감안해 상한 및 하한선을 결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의 주요 공급 동향에 따라 매일 환율을 결정 발표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외환의 투기적인 요소가 감소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일일 환율 고시는 스리랑카 중앙은행 홈페이지(www.cbsl.gov.lk)에서 확인 가능하다.

외환 규제

BOI와 협약을 통해 일반외환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FCBU(Foreign Currency Banking Unit) 계좌를 통한 외화의 보유, 입금 송금이 보다 자유롭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해외송금 및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해외송금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만 맞을 경우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나, 건별로 요구조건이 복잡한 편이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들을 잘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당금 규모별 송금 한도액 등이다.

외환거래는 공인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관련 외환통제 현황을 보면, 현금대출업, 전당포, 자본금 1백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에는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통화법(the Monetary Law)이 수정돼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회사문서들을 심사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규제 권한이 강화됐다.

*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는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현재 수출-수입에 관한 외화반출 이외에는 외화거래에 있어 은행의 업무처리에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여야 하고, 스리랑카인의 경우 외화 거래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 = 292.2 스리랑카 루피 (2023년 6월 2일)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5.3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2.8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사무직 및 고졸-생산직 관련 평균임금 통계가 없음. 상기 수치는 2021년 자료 기준. ○ 스리랑카는 최저임금이 월 단위로 되어 있으며 산업 분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 2021년 자료 기준 12,500 스리랑카 루피(\$42.8) ○ 스리랑카 전체 국가수준의 수치와 콜롬보의 수치는 약 60~70% 차이가 있다 (콜롬보의 임금, 지출수준이 스리랑카 국가 전체대비 60~70% 높음).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업무영역, 근무시간, 임금, 교육 기간(필요 시), 수습 기간, 휴가, 공휴일, 사회 보장 등 고용 조건들을 명시한 문서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노동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법정 최저 근로 연령은 18세이다. 법정 퇴직 연령은 55세이나 고용주의 전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 16~18세 사이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켜서는 안 되며, 밤 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켜서는 안 된다.

공단지역의 경우 Job Bank를 통해 고용할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문광고나 광고지 등을 통해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한 편이나 콜롬보에서 가까운 Katunayake EPZ, Biyagama EPZ 등 공장이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를 구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은 노동력 수급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항구나 공항까지의 교통, 숙련공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숙련공 확보가 쉽지 않다. 숙련공이나 젊은 인력들이 급여 수준이 높은 해외 근로자로 취업해 나가고 있어 봉제, 기타 어렵고 힘든 일자리는 구인난과 잦은 전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사무직원 구인은 보통 일요 신문(Sunday Observer 등)에 구인 광고를 내거나 콜롬보 대학 등 대학에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 중 구직 희망자 리스트를 보내주도록 의뢰하기도 한다. 스리랑카 정부가 노르웨이 정부의 무상원조를 받아 시작한 JobsNet에 구인회사들이 게시하면, 구직 희망자가 신청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대부분의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Permanent Full Time Workers)는 최장 근로시간, 최저 임금, 휴가, 노조결성권, 안전 및 건강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해고 관련 법(TEA: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of Workmen Act)'은 6개월 이상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는 사유 혹은 증빙서류가 확실한 근로 기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해고(fire, 또는 lay off)가 어렵도록 규정돼 있다.

노사 및 해고 관련 노무분쟁은 법무부 산하 노동심판소(Labour Tribunal)에서 관장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 업무, 근로시간, 임금, 훈련(필요 시) 및 수습 기간, 휴가 및 휴일, 퇴직금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공장 근로자의 경우 주당 45.5시간(월~금요일에는 8시간/일 및 토요일 5.5시간), 사무실 근로자의 경우 주당 45시간(월~금요일에는 8시간/일 및 토요일 5시간)이다. 기본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정상근무 8시간 + 휴식 1시간)이며 일 9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당 정상임금의 1.5배(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1.5~2배)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은 월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휴가

연차(Annual Leave)(유급)는 만 1년(12개월)을 근속한 경우 2년 차부터 14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고용된 첫해의 경우 1/4분기에 고용된 자는 14일, 2/4분기는 10일, 3/4분기는 7일, 4/4분기는 4일이 주어진다. 사용치 않은 연차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상호합의로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캐주얼휴가(Casual Holidays)(유급)는 근속 2년째부터 연 7일의 캐주얼 휴가를 준다(미사용된 캐주얼 휴가는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이 제도는 사무실 직원에만 적용된다. 병가(Sick or Medical Leave)(유급)는 100%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허가되는 휴가이다. 통상 최대 연간 21일이 주어지며 메디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출산 휴가(Maternity Leave)(유급)는 여성 고용인에게만 해당한다. 첫째, 둘째 아이의 분만 시는 12주(84일), 셋째 아이의 분만 시는 6주(42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 출산 휴가는 분만 14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휴가 동안의 임금은 정상임금의 월 급여를 지급한다.

매달 Poya Day(Full Moon Day)는 유급 휴일이다. 그 외에 법정 공휴일(Mercantile Holidays)도 유급 휴일이다.

해고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사유(예: 비행, 사기, 준법질서 준수 거부 등)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할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재판소에 제소 가능하다.

해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예비심사(Preliminary Investigation) → 1차 경고(Warning) → 2차 경고(Show Cause) → 내부 조사(Domestic Inquiry) → 최종 징계(Final Action)의 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비심사는 관리자가 범칙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증인 및 관련 근로자의 서면진술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판단 시 경고가 정당하다고 할 때 서면 형태로 해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에 의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심판소(labour tribunal)에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도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최종 판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 혹은 인력의 잉여 상태임에도 정리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 시 동료 간에 동정 파업을 일으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고 근로자와의 법정 분쟁에 따르는 불필요한 인력, 시간 낭비 및 소송비, 위로금 지급 판결 등의 우려로 신속적인 노무관리는 쉽지 않다.

징계 사유(예로 비행, 사기, 준법질서 준수 거부)가 있을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하고, 시달서나 경고서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향후 노무 관계 발생 대비에 반드시 필요하다. 2005년 이후 해고 정리 기준을 돕기 위해 Termination Formula가 공시됐다. 아울러 정리해고의 경우 사전에 스리랑카 투자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적합성 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

국가가 제시하는 해고 방정식이 다소 높은 감은 있지만, 고용주로 하여금 고용인 해고를 감행할 때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고용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불필요한 고용주, 고용인 간의 분쟁도 많이 줄었다. 한편, 정리해고 수당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존치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퇴직금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퇴직하는 가장 가까운 달의 급여 총액 기준에 의해 1년당 1/2개월을 계산한다.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1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지만,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피고용자가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의견이다. 이는 노동법의 상/하위법 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럴 경우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법을 해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스리랑카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와 영국식 제도의 잔재로 인해 개도국 여건에 비한다면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는 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과 근로자신탁기금(Employee's Trust Fund; ETF)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정부가 스리랑카 국민에 대해 100%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국립병원에 한함)하며, 산재보험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국립병원의 경우 오래 기다려야 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개인병원을 선호하는 추세이나, 개인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 제도는 없고 사실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스리랑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된다.

고용보험

- EPF(근로자공제기금, Employees' Provident Fund):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급여의 20%(근로자 부담 8%, 고용주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금에 불입하는 것으로, 급여는 근무 초과수당을 제외한 임금과 수당을 포함한다.

- ETF(근로자신탁기금, Employee's Trust Fund):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까지의 총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기금에 불입해야 된다. 근로자는 지급 의무가 없지만, 가입은 의무이며, 고용주는 가입 및 지급이 의무이다.

산재보험

노동자 보상법(Workman's Compensation Act)에 의거 고용주는 고용인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가입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고용인에 대한 보상은 고용주 책임이다. 스리랑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보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민연금

상기 건강보험 참고 요망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2023년 8월 2일 기준

1) Standard Rate 30%

2) 이하 내용 전부 30% 적용: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at conduct business in Sri Lanka, which do not have an associate that is an entity, and with an annual turnover less than 500 million Sri Lankan rupees (LKR)

Predominantly conducting of a business of exporting goods and services (exports includes specified undertakings)*

Companies predominantly providing educational services

Companies predominantly engaged in an undertaking for the promotion of tourism

Information technology

Construction services

Healthcare

Manufacturing

3) Business consisting of betting and gaming, liquor, and tobacco 40%

4) Gains from the realisation of investment assets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PWC 스리랑카 회계법인 <https://taxsummaries.pwc.com/sri-lanka/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2023년 4월 1일 부터 적용

1) Standard Rates (연간소득기준)

first LKR 500,000 - 6%

next LKR 500,000 - 12%

next LKR 500,000 - 18%

next LKR 500,000 - 24%

next LKR 500,000 - 30%

그 이상의 수입의 경우 - 36%

* 2,500,000 rp 이상 수입의 경우 36%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Special Rates

도박, 술, 담배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40%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보석 판매 소득에 있어서 최고 소득세율은 14%이다 (-> 이 부분은 2022년 10월 1일자로 폐지됨)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에 대한 개인 수입의 최고 소득세율은 14%이다 (-> 이 부분도 2022년 10월 1일자로 폐지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PWC 스리랑카 회계법인 <https://taxsummaries.pwc.com/sri-lanka/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부가가치세

VAT는 국가 세수 확대를 위해 종전 12% -> 15%로 증가되었다 (2022년 9월 1일 부터~).

특별소비세

특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CESS라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종량 혹은 종가세 방식으로 품목별로 15%에서 45%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CESS Schedule of the Extra Gazette No 2312/76 of 01.01.2023)

- 품목별 확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ustoms.gov.lk/customs-tariff/>

국가재건세(NBT)

기존에 NBT가 있었으나, 2019년 12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스리랑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국제 지적재산권보호 협약 체약국으로서, 지재권 관련 규정으로는 2003년의 「지재권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과 2006년의 「지재권규정(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No. 1 of 2006)」이 있다. 식물다양성(plant varieties) 관련 규정은 입법조치 중으로서 아직 관련 입법이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WIPO공연및음반조약(WPPT), WIPO저작권조약(WCT), 정부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스리랑카내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소프트웨어 해적판 비율은 2011년 84%에서 2017년 77%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 56%, 파키스탄 83%, 방글라데시 84%이고, 한국은 32%, 미국은 15%이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스리랑카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철수 및 청산 시 현지 기업과 동일하게 스리랑카 회사법(Companies Act No. 07 of 2007)의 적용을 받는다. 단, 투자법인의 청산은 투자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반면, 현지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차이점이다. 투자청에서는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해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투자조건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기에 청산 절차가 어렵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2) 자발적 청산과 법원 결정에 따른 청산

Winding up Rules of 1939에 따르면, 투자법인이 자발적으로 청산을 원할 경우,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BOI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부 등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위배사항이 있거나 청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감사를 해 투자청에 보고한다. 이후, 문제가 없을 시 투자청의 철수 및 청산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노무 관련 사항은 EPF/ETF 법을 따르며 청산금을 송금하는데에 필요한 승인절차는 없다.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법인 설립 후 1년 동안 비즈니스 활동이 없었을 경우,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원에 따른 결정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 탄원서, 진출서, 청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지명하게 된다.

3) 유의 사항

실제로 철수 및 청산 시 실무적인 문제에 자주 부딪히므로 투자 시작 시점부터 중요한 서류는 철저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과거 투자법인 철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도 존재하는데, 몇 년 전 한국 업체가 정식 철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해 현지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다.

또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무리하게 청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가 활동기간 중 제공된 인센티브를 모두 환급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계약한 프로젝트 미완료 시에도 해당한다. 청산 시에는 종업원 정리해고수당 방정식에 따라 많은 수당을 예상해야 하며, 투자 기업에는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산 시 과거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 징수하기 때문에 오래된 서류도 모두 보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국가는 돈이 없지만 개인은 돈이 있을 수도 있는 특이한 시장”, “총체적 마이너스 재무제표로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로 통계치와 실제 상황, 콜롬보 지역 내/외의 실물경제 지표 차이도 크다.

'22년 7월 기준 대통령이 긴급 사임하고 기존에 총리였던 라닐 위크라마싱허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사회와 IMF와의 협상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인구 2,000만의 작은 섬나라로, 자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 지난 몇년간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독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으나, 2022년 5월 디폴트 선언 이후 다수의 자국 내 인재들이 선진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글로벌 화물운송의 핵심 관문인 인도양의 허브로써, 정부가 재무관리 유무에 따라 꾸준한 경제 성장이 가능한 국가이다. 브랜드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중산층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격대와 고품질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고,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국제기금원조를 받고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만약 스리랑카가 연간 인구성장률 0.5%, 인플레이션 5%, 루피 평가절하율 3%, 실질 경제 성장률 6%가 계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9년 까지 8,000달러로, 2034년까지 12,0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1인당 GDP가 USD 4,000달러를 넘게 되면 'Upper-Middle Income(중상위 소득국)'으로 분류되는데, 스리랑카는 2019년도에 중상위 소득국까지 올라갔다가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2020년 7월에 다시 '중하위 소득국'으로 내려갔다.

현지 에이전트 역할이 강조되는 시장으로, 높은 관세와 익숙하지 않은 상관습,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시장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품은 하나의 에이전트사가 수입 허가부터 시작해서 유통, 마케팅, 판매, A/S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평판이 현지에서 제품 마케팅 및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조사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현지 에이전트로 선택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리랑카 투자청이 주목하는 성장 분야인 기능성 의류 제조, 제약 및 의료기기, 음식 가공, 전자/자동차 부품 제조, IT, 관광, 물류 산업과 함께 정부조달 시장진출도 고려할 수 있으며, 유희설비 및 중고 제품 (부품)의 틈새 분야에 진출 기회가 있으니 고려할 수 있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한국의 중산층과 유사한 소비수준(소비금액)을 보이는 소비층은 전체 인구(2,120만 명)의 약 10~20% 정도로 추정된다. 참고로, 스리랑카의 가계 월 소득 (전체 가계의 중간값)은 2019년 기준 76,414 루피(Rs.)인데, 경제 수도인 콜롬보 지역의 생활 수준과 통계에서 보여주는 월평균 소득에는 큰 차이가 있어, 콜롬보 지역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도심 지역 가계 평균 월 소득은 116,670 루피, 시골 지역 가계 평균 월 소득은 69,517루피로 집계되었다.

◦ 보다 더 자세한 자료는 스리랑카 통계청에서 -> 가계 소득과 지출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statistics.gov.lk/IncomeAndExpenditure/StaticInformation/HouseholdIncomeandExpenditureSurvey2019FinalReport>)

<자료원 :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2019년 통계 집계 자료, 2022년 9월 기준 최신자료) >

소비 성향

고가품 및 고품질의 일반 소비제품과 기호식품 및 사치품은 일부 고소득층 및 외국인을 상대로 특정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높은 관세로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 그러나 2009년경부터 구매 결정기준이 가격(저가 선호)에서 품질 위주로 점점 옮겨지고 있다. 지방 소비자들도 일반 상품보다는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소비성향이 프리미엄화 추세에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고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전제품, IT 제품 등의 경우 고장이 나도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중고 PC와 재생타이어 수입시장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 제품의 경우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신항도시 중산층을 모방한 소비행태가 확대되고 있는데, 소득수준은 이에 못 미치지만 스리랑카 주부들은 심정적으로 신항중산층의 생활을 동경하고 중산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의류, 장식품, 자동차, 주택 인테리어, 가전제품, 외식 등에서 모방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상권의 중심인 콜롬보에는 현대식 쇼핑몰도 몇 개가 성업 중이며,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수입 식료품 상점들도 있으나 아직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혹은 체류 외국인이 주요 고객이며,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일반 재래식 시장에서 식료품이나 일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2022년 9월 30일 기준, 올해 약 10,000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어 현지인들의 한국어, 한국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높다. 한국어능력평가인 TOPIK 응시에 2023년도 상반기에만 8만 5천명이 응시할 정도로 관심이 높으며, 스리랑카인들은 제조업 종사를 희망하기 때문에 평균 성적도 높은 편이다.

2012년 한국드라마 '대장금'이 현지 대표 TV 채널을 통해 상영됐을 당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인기를 끌은 바 있으며, 다수의 한국 드라마가 공중파 TV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됐을 당시에는 방송국 근처 및 콜롬보 중심지에 위치한 큰 광고판에서 한국 배우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각종 드라마와 K-POP 공연 모습이 꾸준히 공중파 채널로 방영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한국드라마에 대한 마니아가 있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괜찮은 편이지만 가격이 비싸서 선뜻 살 수 없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일본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한국제품을 고급품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스리랑카인들은 전반적으로 정서가 온순하며 다소 느린 감은 있으나 합리적인 일 처리가 관례화돼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거래 시 조급성을 띠면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도록 한다.

상거래에 앞서 현지 기업들을 조회하려고 하면, 상장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olombo Stock Exchange(CSE)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주식 브로커들도 상장기업들에 대한 기업평가를 외부에 발표하고 있다. Fitch Ratings는 은행 및 금융기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장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 및 재무정보, 지분관계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사업체 등록소의 등록사업체명 조회하는 방안을 활용해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바이어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참고로, Lanka Orix Factors Ltd(LOFAC)가 로컬 에이전트로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정보회사인 Dun and Bradstreet(D&B)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스리랑카 상대방 기업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요금은 통상 1개 기업 정보당 100달러 정도이다. 스리랑카 기업 중 D&B에 등록된 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대금결제와 관련해서는, 스리랑카 정부는 수입 시 L/C 거래를 권장하고 있다.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의 10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L/C 개설을 위한 예치금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소액거래는 T/T 계약도 많이 하며, T/T 거래 시 계약 건당 지불 한도금액이 1만 달러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 1만 달러 이상의 계약에 대해 T/T 결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 주재국 정부의 외화 송금 제한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T/T 방식으로 계약하기가 어려워 졌다.

스리랑카의 경우 시장규모가 작아서 계약 시 독점판매권을 얻고 싶어 하며, 독점판매 거래 시 계약 기간 및 세부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스리랑카 국적자의 경우 한국업체의 초대장이 있어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 한국 공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및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중소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과세 표준액 4만 5천 달러 정도에서 세금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담 시 명함을 2~3개씩 건네는 바이어도 흔하며, 상담은 A사 바이어와 했는데 계약은 B사 이름으로 하는 것도 다반사이다. 이를 오해해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당 바이어의 기업구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된다.

한편, 수입 시 관세 등 세금, 경비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인보이스상 언더밸류(under value)가 일반화돼 있다. 특히 외국과의 외상거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바이어는 주의가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스리랑카 사람들의 성향상 대화 시 언성을 높인다든지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생활에서도 싸우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순리대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웃음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라 대하기가 편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들과 접할 경우, 불교국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불교 관련

사항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스리랑카의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매우 좋아한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좋은 첫인상을 주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Presentation을 위해 노트북을 앞에 놓고 상담하는 경우 Presentation이 끝나면 바로 노트북은 접고 상대방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좋다.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혹은 자판을 두드리며 상대방 말을 듣는 모습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스리랑카와 한국 간 산업 및 기술 발달에 격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카탈로그만으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스리랑카 바이어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샘플을 보여주거나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가격표는 CIF Colombo로 준비한다.

성공적인 상담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을 경우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통신 사정이 좋지 못해서 연락이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차 연락해 봐야 했지만, 요즘은 통신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이정도면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인의 성격상 여러 가지 조건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제품과 미팅이었어도 일부러 상대방을 기다리게 한다든지 최종 결정 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스리랑카의 바이어와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스리랑카인 특성상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

한편, 상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대화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스리랑카인은 크리켓을 매우 좋아하며 스리랑카의 크리켓 수준은 인도, 호주 등과 더불어 세계 3~4강 이내에 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크리켓의 기본적인 규정과 게임방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쉽지는 않으나 스리랑카의 유명 크리켓 선수나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한 역사 등을 알아두어 대화 시 칭찬해주면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워진다.

- 종교는 불교가 대다수이다.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국교 자체가 불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화가 많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가 가장 자랑하는 페라헤라 불교축제(매년 8월)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승불교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화로 삼으면 좋다.

- 피해야 할 것은 450년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과 소득수준이 낮으며 다른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와 삶의 수준과 생활방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시 반드시 알아두고 시작해야 할 점은, 스리랑카가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0달러 정도의 저소득국가라고 스리랑카인들이 제품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거나 낮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큰 오산이라는 점이다. 해마다 많은 수의 스리랑카인들이 영국, 호주,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으며, 또한 한국을 포함한 두바이 등 스리랑카 보다 잘사는 나라로 일정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스리랑카인들이 많은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따라서 비즈니스 추진 시 스리랑카 사람들에 대한 무시 및 지나친 한국 제품에 대한 우월성 강조는 실패를 부를 수 있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Kapruka

사이트 주소	www.kapruka.com
개요	온라인 쇼핑 회사 중 매출액이 가장 큰 회사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그룹 전체 연 매출은 한화 약 80억원이고 온라인 쇼핑몰만은 8억원이다. 고용인원은 300여 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전 품목 판매
특징	미국, 호주, 영국에 지사가 있고 Amazon, Flipcart와도 파트너십을 체결 중이다.

◦ Ikman

사이트 주소	www.ikman.lk
개요	“지역 내 거래 활성화”가 가장 큰 장점인 플랫폼으로, 해당 지역으로 필터링 해서 중고제품 거래를 개인간 할 수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고용인원은 약 20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중고 거래 포함, 전 품목 판매
특징	개인이 판매하고 싶은 물건을 플랫폼에 올려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 Odel

사이트 주소	www.odel.lk
개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운영하는 백화점 품목 연계 쇼핑몰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백화점 전체 매출 규모 2022년 기준 한화 160억원이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및 패션아이템
특징	백화점에서 파는 품목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스리랑카 전역에 판매한다.

◦ Takas

사이트 주소	www.takas.lk
개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자동차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소비자가 원하는 무엇이든 온라인쇼핑몰에서 구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2년 설립되었으며, 고용인원은 85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소비재
----------	-----

○ Daraz

사이트 주소	www.daraz.lk
개요	스리랑카에서 운영하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하며, 인도를 제외한 서남아시아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6년에 설립되었고, 16,800명의 셀러가 상품을 판매 중이며, 총 직원수는 500여 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소비재
특징	스리랑카 전체 온라인 쇼핑 이용 경험 고객 중 85%가 Daraz에서 쇼핑한 적이 있고, 94%가 Daraz 모바일 앱으로 쇼핑했을 정도로 최대 이용률을 자랑한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부산디핑/카니발월드

부산디핑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 중 하나이다. 저임 노동력과 천연고무 공급선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92년에 스리랑카에 투자진출 하였으며, 자매 업체로 헬러윈 가면을 생산하는 카니발월드가 1990년에, 작업용 다목적 장갑을 생산하는 KOATED GLOVES가 2008년에 설립되었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홍콩 등 주요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자체 브랜드 육성 및 OEM 다각화로 마케팅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생산 제품의 주원료인 천연고무를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여 고무 생산량이 적은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관리직원을 대부분 현지화하여 현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 명을 현지인 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지인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우수한 자체 설비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및 폐수처리 설비 등을 대부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사는 2008년 시작된 전 세계적 경기불황에 대응한 수출 다각화 전략으로 기존의 선호시장인 미국, 유럽에 그치지 않고 중동, 동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고급시장 및 대중시장에 다양한 품질의 풍선을 동시에 공급했다. 또한, 무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마케팅으로 직접 해외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지속했다.

2) 대한항공

2013년 5월 대한항공은 스리랑카 콜롬보에 공식 취항을 하게 됐다. 시발점은 2012년 5월 라자팍사(Rajapaksa) 전 대통령 방한 시 대한항공 취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고, 이에 따른 취항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KOTRA 콜롬보 무역관은 초기 검토 시점에서의 기초자료 및 스리랑카 현지의 경제동향, 사업환경, 투자기업 현황 등의 경제정보를 제공해 대한항공의 취항을 지원했다. 애초 대한항공 취항에 따른 사업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무역관의 정보와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검토를 거듭한 결과 사업성 가능으로 판별이 났다.

대한항공의 스리랑카 취항은 일반기업과 달리 현지 항공부를 통해 등록해야 했다. 콜롬보 무역관은 기존처럼 현지 투자청 등의 절차적 지원보다는 투자진출을 위한 시장성 측면의 지원활동을 했다.

* 코로나19 이전까지 대한항공은 인천-스리랑카 콜롬보 항공 노선을 주 3회(월·수·토) 운영하였으나, 2022.5월부터 잠정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실패사례

□ 스리랑카 수출 시 한국기업이 염두해야 할 점

스리랑카는 인근국에 비해 현지인 교육 수준이 높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반면 자존심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리고 다수의 스리랑카인이 교육 및 근로 목적으로 영국, 호주, 한국, 미국, 두바이 등 선진국을 방문/거주한 경험이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가 1인당 연간 GDP 4,000불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제품 위주의 수출 전략을 펼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요즘은 스리랑카 바이어들도 제품 브랜드, 회사 인지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만큼 가격경쟁력과 품질의 동시에 갖춘 제품만이 현지 수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 개도국 바이어에 대한 존중 및 글로벌 상도덕 준수가 필요

○ 2020년 하반기 ~ 2021년도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실제 사례

스리랑카의 한 무역회사는 영국의 보건부(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미국의 유명 브랜드 보건마스크를 600만불 규모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미국 유명 브랜드 마스크의 공급이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구하기 힘들자, 스리랑카 회사 대표는 다른 나라에서 소싱할 목적으로 한국의 한 무역회사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 한국 회사 대표는 기한 내 영국 NHS에 직접 납품 할 수 있다고 약속하여 양사는 공급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한국 회사도 미국 브랜드 마스크를 납기일까지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국 스리랑카 무역회사는 영국 NHS의 신용을 잃게 되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스리랑카 기업영국 NHS 간 계약을 무시하고 직접 NHS 납품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기존에 스리랑카 기업에서 제품 구매를 위해 선지급한 30%의 금액도 반환할 수 없다고 스리랑카측에 통보하였다. 무역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진행상황만 확인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개도국 바이어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 및 글로벌 상도덕 미준수로 인해 현지에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게 한 계기가 되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출입국/비자

한국인들은 스리랑카 비자 취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2년 1월 1일부터 스리랑카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On-Line Visa Service)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방문목적에 관계없이(Transit일 경우도 포함) ETA를 통해 사전에 비자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비자 수수료도 청구한다(단, 12세 이하 및 외교/공무 비자는 비자 수수료 없으나 사전에 비자 신청해야 함).

사정상 ETA 신청을 하지 않고 입국해야 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비자를 구매할 수 있다. On-Arrival로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광비자, 비즈니스 비자에 각각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다. 공항에서 입국절차 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On-line ETA 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하는 것을 권한다.

스리랑카는 영주권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매년 거주 비자(Residence Visa)를 이민청(Immigration Office)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수수료는 USD 100~200가 소요된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기체류 목적과 관련된 현지 관련 부처(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투자청 등)로부터 사전에 거주비자 발급 추천서를 받아 비자발급 신청서류와 함께 이민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체류비자(Residence Visa) 획득 제도

스리랑카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로컬기업의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 투자기업의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Post)의 업무가 스리랑카인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스리랑카에 자회사 또는 지사로 투자 진출해 설립되는 경우 모기업(본사)으로부터 파견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파견되는 보직에 스리랑카인을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모기업(본사) 없이 단독법인 설립(예: 교포 기업 등)의 경우에도 비스리랑카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직에 비스리랑카인을 꼭 채용해야만 하는 증빙이 필요하다.

스리랑카는 취업비자(Working Visa)가 없으므로 취업허가 시 체류 비자(Residence Visa)를 발급하는데 동 체류 비자에 체류 목적이 명기돼 있다. 스리랑카 취업비자(Residence Visa) 발급방법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진출 시 투자기업의 Share Holder(지분소유주)와 모기업으로부터의 파견직원 간 다소 다른 절차를 통해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투자기업의 Share Holder(지분소유주)는 투자신고를 위해 사전에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투자기업 등록 후 이민국에 Residence Visa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즉, 한 번 스리랑카에 입국 후 체류비자 획득을 위한 Entry Visa 발급을 위해 다시 모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기업으로부터의 파견직원은 해당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Entry Visa를 받아야 하는 등 현지 기업이 외국인 채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즉, 회사 설립을 위해 스리랑카를 방문했어도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모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Entry Visa 신청절차부터 단계적으로 비자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체류비자(Residence Visa) 발급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100~2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장(長)에 한해 2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비자 발급비용은 2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현지 투자유치청(BOI)을 통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BOI에서 현지 비자 관련된 사항을 주선해주므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닌 현지 사업체 등록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현지 이민청 등을 통해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비자 수수료 관련 웹사이트 링크 참조 : https://www.immigration.gov.lk/pages_e.php?id=45

- 2022년 5월 부터 "Golden Paradise Visa Program"이 적용되어 외국인이 200,000 달러이상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스리랑카 은행에 금액을 예치할 시에, 10년 거주비자가 발급된다.

- 다만, 투자금액이나 거주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민국과 확인하기 바란다. 이민청 웹사이트 링크 참조:
<https://eservices.immigration.gov.lk/golden-paradise-visa.html>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개인 용품으로 스리랑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휴대품이어야 하며 수량은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정도로 한정된다. 아울러, 해당 물품의 재반출이 도착 후 6개월 이내이면서 확실히될 때는 면세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표준 사이즈 기준으로 와인 2병, 1.5리터 양주, 1/4리터 이하의 물과 소량의 향수,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비상업용 기념품은 면세 반입이 허용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94 11 269 9036 (-8)
주소	No. 98 Dhamapala Mawatha, Colombo 7, Sri Lanka
홈페이지	http://lka.mofa.go.kr

○ KOICA 스리랑카 사무소

전화번호	+94 11 266 7969
주소	KOREA ODA CENTER, NO.9/2, Dudley Senanayake Mawatha, Colombo 08,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 한국 수출입은행(KEXIM) 콜롬보 사무소

전화번호	+94 11 267 5355
주소	KOREA ODA CENTER, NO.9/2, Dudley Senanayake Mawatha, Colombo 08,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koreaexim.go.kr

○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 스리랑카 EPS 센터

전화번호	+94 11 288 6945
주소	171/4, 2nd Floor, Main Street, Battaramulla,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 농촌진흥청(KOPIA) 스리랑카 센터

전화번호	+94 81 238 8375
주소	Horticulture Crops Research & Department of Agriculture, P.O.Box 11, Gannoruwa, Peradeniya, Sri Lanka
홈페이지	http://itcc.rda.go.kr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EDB (Sri Lanka Export Development Board, 수출진흥청)

전화번호	+94 11 230 0705/11
주소	No.42, Nawan Mawatha, Colombo 2,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srilankabusiness.com
비고	스리랑카 수출진흥위원회

○ BOI (Board of Investment)

전화번호	+94 11 242 7122
주소	West Tower, World Trade Centre, Echelone Square, Colombo,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investsrilanka.com
비고	스리랑카 투자유치청으로서 Korean Desk (내선 7122)로 연락 가능

○ The Ceylon Chamber of Commerce(스리랑카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94 11 242 1745 (-7)
주소	50 Navam Mawatha, Colombo 2,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chamber.lk
비고	자국, 외국인 사업적 만남을 위한 중앙정부의 핵심 조직. 전문위원회, 제휴 조직, 비즈니스 상담 등의 업무 담당

○ Sri Lanka Customs

전화번호	+94 11 222 1333
주소	No.40, Main Street, Colombo 11,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lk
비고	스리랑카 관세청으로서 주요 역할은 수입통관, 관세법 또는 이와 관련된 규칙이나 제재 관리

○ Department of Commerce

전화번호	+94 11 232 9733
주소	No. 21, Vauxhall Street, Colombo 2,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doc.gov.lk

비고	정부 무역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스리랑카의 상호 무역 관계, 지역 간 또는 다자간 무역 관계를 개발, 진흥시키는 부서
-----------	---

○ Daily News

전화번호	+94 11 242 9429
주소	No. 35, D.R.Wijewardena Mawatha, Colombo 10,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dailynews.lk
비고	1918년 개간한 스리랑카의 국가적 신문

○ Daily Mirror

전화번호	+94 11 533 5731
주소	No. 8, Hunupitiya Cross Road, Colombo 2, Sri Lanka
홈페이지	http://www.dailymirror.lk/
비고	Wijeya Newspapers에 의해 발행되는 영자신문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307 스리랑카루피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900
2	식품	순두부찌개	1인분	9.700
3	식품	김치찌개	1인분	9.7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6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8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290
7	음료	스리랑카 맥주(마트, 맥주명: 라이언-현지 브랜드)	500ml	1.300
8	의료	병원진료비	전문의 1회	10.4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120
10	교통	특통(삼륜차)	기본요금	0.3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240
12	서비스	헤어컷 (Colombo 7, 외국인 애용, 여자)	1회	16.200
13	서비스	휴대전화(월표준)	1분	1.850
14	서비스	인터넷(1G 요금) + 세금 별도	1GB	0.4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백화점내 영화관 1회	3.900
16	여가	담배	1갑	6.19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9.900
18	임금	대출초임	은행권 평균(인센티브 포함금액)	195.400
19	학비	국제학교(초등학교) 수업료	연간	30000.000
20	금리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30.000
21	식품	쌀	1kg	0.700
22	식품	브랜드 체인 식빵	한묶음	1.800
23	식품	고기	1kg	6.000
24	식품	계란	10개	1.800

25	식품	우유	1L	1.100
26	식품	식용유	1L	3.30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050
28	주거	수도세	Cubic Meter	0.040
29	주거	가스비	12.5KG	12.18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국가 의료보험 무료임	0.0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3.9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1600cc	130.3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00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	0.05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	0.0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22GB	5.000
37	서비스	TV 수신료 + 세금별도	1개월	6.10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2.99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0.78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26.000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 단위는 스리랑카 루피(LKR)를 사용하며, 약칭은 루피(Rupee, Rs)이다. 지폐로는 5,000, 2,000, 1,000, 500, 100, 50, 20루피가 있고 동전으로는 10, 5, 2, 1루피가 있다.

환전방법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소 환율이 낮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호텔 등에서도 환전할 수 있다. 유명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는 달러가 통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호텔 이외 상점에서는 달러 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 혹시 되더라도 환율이 높지 않다. 콜롬보 공항에 은행 환전소가 설치돼 있으므로 입국 직후 얼마간의 필요한 현금을 환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콜롬보 공항 환전소에서 인도 루피화는 취급하지 않는다.

출국 시 현지화를 달러화로 재환전할 경우 입국 시 환전한 은행 영수증이 꼭 필요하고, 호텔 등에서 환전한 영수증으로는 재환전이 불가능하므로 많은 금액을 환전할 경우 입국 시 은행에서 환전한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다.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현지화를 달러화 현금으로 환전할 때는 항공권 구매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VISA/Master 카드일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merican Express 카드는 가맹점들이 제한적이어서 카드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콜롬보 시내의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6:00~18:00)에는 차량정체가 무척 심한 편이다. 아울러, 학생들 하교 시간대(13:00~14:00)에는 학교 인근의 차량정체는 더욱 심해진다.

차선을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긴 하지만, 버스들이 매우 과격하게 운전하는 편이며 삼륜차(특특)과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물고 운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다만, 교통경찰들이 항상 체크를 해서 교통신호는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

콜롬보 시내를 벗어나서는 도로 폭이 넓지 않다 보니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앞에서 서행이라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느린 속도로 달리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옆 차선을 넘나들면서 무단 질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지방은 도로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 아울러,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야생 코끼리들이 간혹 도로를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버스

현지 버스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지 버튼을 눌러도 간혹 서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택시

현지 출장 비즈니스맨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호텔 택시와 콜택시이다. 호텔에서 출발할 경우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요금이 일반 콜택시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콜택시를 부를 경우 약 10~15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로, 현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콜택시 App은 Pick Me이다. 요금은 미터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흥정은 필요 없다. 참고로, 모든 콜택시는 전화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는 것은 삼륜차(투투)이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지 사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동 거리가 가까운 경우 투투(Tuk Tuk, Three-wheeler)이라 불리는 삼륜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그러나 에어컨 없는 오픈카이기 때문에 매연을 그대로 마셔야 하며,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거리나 경험 삼아 한두 번 타는 것 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삼륜차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는 통상 요금의 두 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다반사이며, 무작정 타면 오히려 택시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타기 전에 반드시 미터기가 달린 택시인지 확인을 하고 타야 한다. 미터기는 기본 가격 80루피에 1km당 70루피씩 오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외국인을 태우는 경우 미터기가 고장 났다며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km당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 출장이나 차가 현지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렌터카 이용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공항에서 콜롬보까지는 공항 택시(약 20~25달러 수준) 또는 사전에 체류할 호텔에 요청해 호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택시가 더 쾌적한 편이다.

이외에 시외버스 및 철도도 있으나 철도는 배차간격이 길고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버스는 도시 간 직행인 인터시티 버스 외에는 냉방이 돼 있지 않은데다 극심한 혼잡, 치안 등의 문제로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스리랑카에는 5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경쟁 중이다. 이동통신 가입이 쉬우며 가격도 저렴하다. 입국 시 공항에서도 단기 대여가 가능하다. 단기 출장일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화기를 로밍해 오면 이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내 통신사(Dialog, Mobitel 등)에서 선불제 SIM 카드를 150루피(약 1,000원)에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분당 약 22루피(약 150원)이다. 데이터 요금은 GB별로 다른데, 요즘은 카카오톡/ 왓츠앱 등 메신저로 통화할 수 있다 보니 선불 SIM 카드를 구매하여 선불 데이터를 충전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GB 데이터 요금은 약 4,400원). 장기 출장의 경우엔 5,000루피(약 3만 4천 원) 이하의 저렴한 전화기도 현지에서 판매하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로밍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은 4G를 주로 사용하지만, 5G역시 상용화되어있다. 평상시 이용하는 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 같은 빠른 속도를 기대해선 안 된다. 콜롬보 시내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우에도 도시 인근 지역이라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아주 큰 불편함은 없다.

라. 관광명소

○ 누와라엘리야(Nuwara Eliya)

도시명	누와라엘리아
주소	Nuwara Eliya, Sri Lanka
명소소개	콜롬보에서 180km 떨어진 스리랑카 차 재배지 중심지역으로서, 해발 1,889m로 연중 쾌적한 날씨와 함께 광활한 차 재배지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 시기리아(Sigiriya)

도시명	시기리아
주소	Sigiriya, Sri Lanka
명소소개	플로나루와에서 약 6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바위로 만든 요새이다. 5세기에 Kashyapa 왕이 이곳에서 요새화된 궁전을 세운 것의 잔해이며, 바위 벽에 새긴 미녀도(프레스코)가 유명하다.

○ 캔디(Kandy)

도시명	캔디
주소	Kandy, Sri Lanka
명소소개	콜롬보에서 116km 떨어진 중부 고산지대에서 위치한 싱할라족 왕조의 마지막 수도이다. Dalada Maligawa에 부처의 치아사리가 보존돼 있으며, Peradeniya 왕국 식물원이 유명하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망고트리(Mango Tree)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762 0620
주소	82, Dharmapala Mw. Colombo 3
가격	1인당 대략 15달러면 식사와 음료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
비고	콜롬보 시내에 소재한 깨끗하고 적절한 가격대의 인도식당이다.

○ 롱펑(Long Feng)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254 4200
주소	155, Sir C.A. Gardiner Mawatha, Colombo 2
가격	1인당 대략 20 달러 선 (음료 포함)

소개	스리랑카의 대표 호텔체인망인 Cinnamon Lake Side에서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다.
----	---

○ 차이나이즈 드래곤 카페(Chinese Dragon Cafe)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780 8080
주소	콜롬보 시내에 2곳, 콜롬보 근처에 4곳의 식당이 있는 체인점
가격	1인당 대략 10달러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
소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 주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비고	중국 음식점이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한국식당

○ 한국관(Hangugkwan)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258 7961
주소	25, Havelock Rd, Colombo 5
가격	1인당 10달러선에서 대부분의 식사 메뉴를 먹을 수 있다.
소개	스리랑카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대표적인 한국 음식점이다.

○ 강식당(Seoul House)

도시명	Colombo
전화번호	+94 11 269 7216
주소	28/1, Horton Place, Colombo 7
가격	1인당 10달러선에서 대부분의 식사 메뉴를 먹을 수 있다.
소개	외국인 지역인 Colombo 7에 소재한 한국음식점이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시나몬레드(Cinnamon Red)

도시명	Colombo
주소	59 Ananda Coomaraswamy Mawatha, Colombo 3, Kollupitiya
전화번호	+94 11 214 5145
홈페이지	http://www.cinnamonhotels.com/en/cinnamonredcolombo/
숙박료	정상요금: 약 120달러(조식, 세금 포함)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현대식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콜롬보 시내 중심지에 소재해 있다.

○ 시나몬그랜드호텔(Cinnamon Grand Hotel)

도시명	Colombo
주소	77, Galle Road, Colombo 3
전화번호	+94 11 243 7437
홈페이지	http://www.cinnamonhotels.com
숙박료	정상요금: 약 195달러 수준(조식, 세금 포함)
소개	시내 중심가에 소재해 있고, 현대식 몰(mall), 대형 슈퍼마켓(Keells), 고급아파트와 연계되어 있다.

○ 킹스베리호텔(Kingsbury Hotel)

도시명	Colombo
주소	48, Janadhipathi Mawatha, Colombo 1
전화번호	+94 11 242 1221
홈페이지	http://www.thekingsburyhotel.com
숙박료	정상요금: 약 175달러 수준(조식, 세금 미포함)
소개	콜롬보의 랜드마크인 트윈타워에 인접해 있으며, 인도양 바닷가 바로 앞에 소재해 있다.

○ 골페이스호텔(Galle Face Hotel)

도시명	Colombo 3
주소	2 Galle Road, Colombo 3
전화번호	+94 11 254 1072
홈페이지	http://www.gallefacehotel.com
숙박료	정상요금: 약 188달러 수준(조식, 세금 포함)

소개	1864년 세워진 호텔로 영국 식민지 시절의 정취가 배어나는 호텔이다. 인도양과 바로 인접, 호텔 야외 카페, 레스토랑에서 바로 석양을 볼 수 있다. 구관과 신관이 있으며 신관이 다소 비싼 편이다. 2015년 하반기에 개조 공사를 마쳤다.
----	---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o 팔복이네()

도시명	콜롬보
주소	Issipathna Mawatha 136/1A, Colombo 5
전화번호	+94 74 266 8568
소개	2023년 1월에 새로 생긴 한인게스트 하우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콜롬보 중심지의 경우 치안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주간 외출에 큰 문제는 없다. 지방의 경우에는 도심 혹은 관광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단독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늦은 밤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신변 안전상 좋고, 외출 시 외출 장소를 알리고 갈 필요가 있다. 전기사정이 열악해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고 대로에서 약간 들어간 도로의 경우 가로등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밤에는 도보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지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때를 쓰거나 현지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흥분한 상태로 과격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은 그대로 두고 현장을 피해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리랑카 도로는 폭이 좁고 대부분 편도 1차선으로 사람, 개, 자전거나 오토바이, 삼륜차(툽툽, 쓰리휠러) 등이 함께 사용하며, 도로변 바로 옆에 인가가 접해있다. 중앙도로 분리대가 없는 도로가 대부분이며 중앙선이 흰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추월 가능)인 경우가 많아 추월이 일상화돼 있으므로 초행인 지역이나 장거리 이동 시는 현지인 기사를 대동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 중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로 많은 희생자가 있었으며, 현재는 대한항공의 인천-스리랑카 콜롬보 직항 구간에 대한 운항이 중단되고 스리랑카 에어라인이 직항을 운항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스리랑카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은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삼륜차(툽툽)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 일반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재판을 통한 해결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난감한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자차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난다면 우선은 경찰에게 신고하고, 렌터카 업체 혹은 자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신고 및 사후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분실신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지갑 분실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혹시라도 경찰에서 지갑을 발견하게 되면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 현지 여건상 경찰을 통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3) 응급 전화번호

-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94-11-269-9036(-8) / No 98, Dhamapala Mawatha, Colombo 7
- 스리랑카 경찰서: 119
- 외국인 전용 병원: Lanka Hospital / +94-11-553-0000 / No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 5
- 24시간 응급실 연락처(앰블런스/화재 시): 110
- 영사콜센터: +82-2-3210-0404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4) 참고사항

콜롬보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 시 개인 응급회사인 MEDI-CALL(011-2575475)을 호출하면 앰블런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1회당 300루피(약 3,000원)이나, 수도권과 원거리 지역은 현지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한국처럼 119, 112 등 어느 지역에서나 호출 가능한 네트워크 응급 체계는 없다. 현지 병원 내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OPD(Outside Patient Department)를 찾아가면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또한, 현지에서 필요 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하나 출장자의 경우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 상비약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병원 시설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분야별로 의사들의 편차가 많고, 오진으로 시설과 달리 의외로 고생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치과, 피부과 등은 타 병원이나 전문 개인병원으로 현지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은 곳을 수소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 진료비용은 내·외과 기준 평균 14달러 선이며, 입원 시 최저 가격은 6인실 1명 1박당 약 30달러이다.

참고로, 스리랑카 의사(특히 전문의)들은 한국처럼 한 병원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한 병원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와 함께 프리랜서 개념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거나 개인 집을 방문하여 진료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는다. 이 추가 소득이 기본 월급 대비 상당하다.

한국인이 콜롬보에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다.

- Lanka Hospital
 - 주소: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 5
 - Tel: 011- 4513054 5530000, 011-5430000
- Nawaloka Hospital
 - 주소: 23, Deshamanya H. K Dharmadasa Saugathodaya Mawatha, Colombo 2
 - Tel: 011- 2544444~7, 011- 2304444~56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외국인들은 주로 최대 도시인 콜롬보(상업중심지) 시내 또는 바로 콜롬보 외곽의 행정수도(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데, 콜롬보는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상업의 중심지인 만큼 각종 문화시설도 이곳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방의 개수나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단독주택은 월 800~1,000달러, 아파트는 월 1,000~2,800달러 사이 정도면 한국인의 기준에 맞는 살만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현지 관례에 따라 보통 1년 단위로 하며, 1년간의 임차료와 1개월간의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주인과의 협상을 통해 6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정도는 대개 수용한다.

아파트나 주택은 보편적으로 경비를 고용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단독가옥(House)의 경우에는 주택 주변에 슬럼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경비원, 정원관리사 등 별도의 고용 인원이 필요하다.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해도 도난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만큼 도난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경비원 고용비용은 1개월에 100~200달러 정도이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전액 지불한다. 스리랑카는 일반적으로 계약 전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 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중도 혹은 해지 시 보증금 일부를 상식을 넘는 높은 하자보수 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고 되돌려주거나 혹은 전혀 반환치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내국인들보다 높게 임대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집을 구할 때 주변의 청결도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열대지방인 만큼 파리, 모기 등이 많고 또 도마뱀이 많아 집에 방충망 및 모기장이 설치돼 있는 것이 좋다. 만약 없을 경우 계약 전 집주인과의 협상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콜롬보 외곽지역 거주 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인 School Time에 차가 많이 밀린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현지에서 학교 종료 시간은 13:30경으로, 이 시간대를 전후로 차량정체가 극심한 만큼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나 사무실이 콜롬보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큰 길가에 위치한 집들은 소음과 먼지로 고생한다. 아울러, 해안가에 위치한 집들은 바닷바람에 영향을 받아 전자제품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구나 가전제품이 구비된 집도 많은 편이다. 특히 냉장고와 별도로 냉동고는 한국 식품을 대량으로 저장하기 위한 필수품인데,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약 전 집주인과 협상해 구입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현재 콜롬보 지역을 기준으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있으며, 월 렌트비용이 1,000불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공실률이 꽤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부분과 맞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다른 집을 알아보기 바란다.

전화

집 또는 사무실 전화 신청은 통신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후불제 및 선불제로 나뉘며 패키지가 다양하다. 원하는 패키지 선정을 위해서는 통신사를 방문해 조언을 얻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휴대폰 개설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와서 현지 SIM 카드로 교체 후 바로 사용 가능하다. 선불제 SIM 카드(충전식)를 이용할 시, 체류비자 또는 주거지가 없더라도 여권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후불제 SIM 카드(월 정액제)로 이용 또는 교체를 희망할 시, 주거지 확인서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현지 주요 이동통신사로는 Dialog, Mobitel 등이 있고, 랜드라인 통신사로는 SLT(Sri Lankan Telecom) 등이 있다. 각 통신사 서비스센터를 직접 내방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면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스리랑카의 전기 규격은 230~240V, 50Hz(영국/호주식)이다. 그러나 각 가정 및 사무실의 벽에 부착된 콘센트는 3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종 전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맞는 별도의 보조 플러그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식수

콜롬보 시내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다고 현지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인들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만큼 가능하면 식수는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인접국들보다 물의 안전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석회질이 많은 편이어서 장기간 마시게 될 경우 건강에 좋지 않다. (중북부 지역에는 수질이 좋지 않아 신장 질환을 겪는 환자들도 많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현지에서는 높은 관세 등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비용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차량 임차료가 생각만큼 저렴하지는 않는데, 외국인이 현지에서 직접 운전하기에는 다소 적응 시간이 걸리므로, 어느 정도 지출을 감수하더라도 기사까지 포함된 조건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렌터카 업체에 따라서는 '기사 포함'을 기본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차량가격

현재 스리랑카는 신차 수입이 금지된 상황으로 중고차만 구매가 가능하며, 중고차 가격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임차의 경우, Toyota Vitz 모델 기준 월 임차비가 약 10만 루피(2022년)로, 운전사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운전사를 고용하거나 운전사를 포함한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 임차차량이므로 보험비용은 렌터카 회사에서 지급한다.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는 콜롬보 외곽 Pilyandala 지역에서 운영하는 Driving Licence Center에서 운전면허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현지 운전면허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서류접수 및 약간의 운전 테스트 후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발급 이전에 운전을 해야 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져와야 한다.

현지에서 변환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절차도 다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미리 서류를 잘 갖춰서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아침 일찍 내방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Sampath, Commercial, National Trust Bank 등이 있으며, 외국계 은행으로는 Standard Chartered Bank, HSBC Bank 등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1년 체류비자 획득 시 은행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모두 가능하나, 은행마다 조건과 운영 방침이 조금씩 다르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여

권(체류 비자가 찍힌 것), 주거지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주거지 확인 레터 등 본인 명의와 주소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는 서류)이다. 여권과 거주 비자를 취득하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중앙은행법에 의해 2가지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로 된 전화국 청구서 혹은 전기세 청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주기도 한다.

외국인은 대부분 직불카드(Debit Card)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의 경우 은행에 따라 보증금이나 신용한도 등 제약이 있다. 일부 은행(CITI Bank 등)은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미화계좌를 개설해 미화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송금은 가능하지만, 스리랑카 내에서의 지불용(Payment)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건별로 해당 은행으로부터 Bank Draft Check를 발급받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비싸지 않다. Current Account는 이자가 아주 낮으나 Saving Account는 이율이 높은 편이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Overseas School of Colombo(OSC)

도시명	Colombo
커리큘럼	IB
학비	연간 30,000 달러 선
홈페이지	http://www.osc.lk
비고	미국계 학교로서 외교관, NGO 및 해외기업 주재원 자녀들이 주로 다닌다. 외국인 교사가 많으며, 학비가 가장 비싼 편이다.

o Colombo International School(CIS)

도시명	Colombo
커리큘럼	A/L
학비	연간 4,000달러 선
홈페이지	http://www.cis.lk/
비고	전통이 오랜 학교이고 현지 고위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스리랑카 내 동문이 가장 많으며,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한국학생에 대한 입학요건이 높지 않은 편이다.

o Elizabeth Moir School

도시명	Colombo
커리큘럼	A/L
학비	연간 4,000 달러 선
홈페이지	http://elizabethmoirschool.com
비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국제 학교 중 하나

○ The British School in Colombo

도시명	Colombo
커리큘럼	IB, A/L
학비	연간 4,000 달러 선
홈페이지	http://www.britishschool.lk/
비고	전체 학생수가 가장 많고 시설이 크고 좋다. 영국에서 직접 운영하며, 영국인 선생님을 메인교사로 두며, 영국 학제를 따른다. 전세계 British School 기구에서 운영하는 학교 이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 Lanka Hospital

도시명	Colombo
주소	No 578, Elvitigala Mawatha, Narahenpita, Colombo 5
전화번호	+94 11 553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콜롬보의 대표적인 사립병원 중 하나이다.

○ Asiri Hospital

도시명	Colombo
주소	No. 181, Kirula Road, Narahenpita, Colombo 5
전화번호	+94 11 452 33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콜롬보의 대표적인 사립병원 중 하나이다.

○ Durdans Hospital

도시명	Colombo
주소	3 Alfred Pl, Colombo 3
전화번호	+94 11 214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콜롬보의 대표적인 사립병원 중 하나이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ODEL

도시명	Colombo
주소	No. 5 Alexandra Place, Colombo 7
홈페이지	http://www.odel.lk
비고	스리랑카의 유일하면서도 대표적인 현대식 백화점이다.

o Colombo City Centre

도시명	Colombo
주소	137 Sir James Pieris Mawatha, Colombo 2
홈페이지	http://www.colombocitycentre.lk
비고	현대식 극장(SCOPE CINEMA)과 푸드코트, 그리고 아울렛 상점 등이 있다.

o One Galle Face Mall

도시명	Colombo
주소	1A, 02 Centre Rd, Colombo
홈페이지	https://onegalleface.com/
비고	2019년 11월 8일에 오픈한 스리랑카에서 가장 최신 시설을 갖춘 종합 쇼핑몰(극장 - PVR Cinemas, 푸드 코트, 상점, 미용실, 체육관)이며, 샹그릴라 호텔과 연결되어 있다.

<자료원 : KOTRA 콜롬보 무역관>

- 식품점
없음.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10. KOTRA 무역관 안내

○ KOTRA 콜롬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No. 59, 3rd Floor, Edward Lane, Colombo 03, Sri Lanka
- 전화: (+94) 11 259 7494
- 팩스: (+94) 11 259 1818

공항-무역관 이동

- 반나라나이케(Bandaranayake) 국제공항에서 택시로 이동한다.(셔틀이나 대중교통 없음)
- 콜롬보 시내 Kollupitiya(Colombo 3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Thummulla 교차로에서 Duplication Road 방향으로 가다가 HSBC 은행까지 가기 바로 전 오른쪽 옆길로 진입하면 그 도로가 Edward Lane이고, 왼쪽 2번째 건물 3층(한국식으로 4층)에 위치해 있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INTEX 2023 (섬유원자재와 의류악세서리 및 기계)	2023-08-09 ~ 2023-08-11	BMICH	Intex South Asia
Colombo Lifestyle Fair 2023 (가구와 인테리어)	2023-07-28 ~ 2023-07-30	BMICH	ASIA EXHIBITION AND CONVENTIONS
Construction Power & Energy Expo 2023 (건설과 에너지)	2023-07-07 ~ 2023-07-09	BMICH	LECS Lanka Exhibition & Construction Services
Medicare 2023 (의약품과 의료기기)	2023-03-03 ~ 2023-03-05	BMICH	스리랑카 보건부 산하 Medicare라고 불리는 위원회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